

미원의 첨단발효기술이 탄생시킨 저칼로리 감미료 “그린스위트”



세계수준의 발효기술로 만든 건강감미료 그린스위트

그린스위트는 당질이 아니고, 아미노산계 감미료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거의 없어 비만이나 당뇨, 충치 걱정이 없습니다. 특히 다이어트하는 젊은 여성들도 살렘 염려없이 단맛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수준의 발효법을 이용한 제조기술

그린스위트는 단백질 식품에 흔히 존재하는 아미노산 성분인 페닐알라닌과 아스파르트산을 결합시킨 아미노산계 감미료입니다. 미원은 그린스위트의 원료인 페닐알라닌의 세계 최고 수준의 고수를 대량생산 기술특허를 미국으로부터 획득하였으며 지난 '93년 11월 국내 식품업계

최초 국제품질인증인 ISO 9002를 획득했습니다.

자연의 달콤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린스위트

그린스위트는 과일, 야채, 우유 등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으로 만든 '아스파탐'이 주성분이므로 천연식품과 동일하게 소화되며 뒷맛이 부드럽고 산뜻합니다.



어떤 음식에도 잘 어울리는 그린스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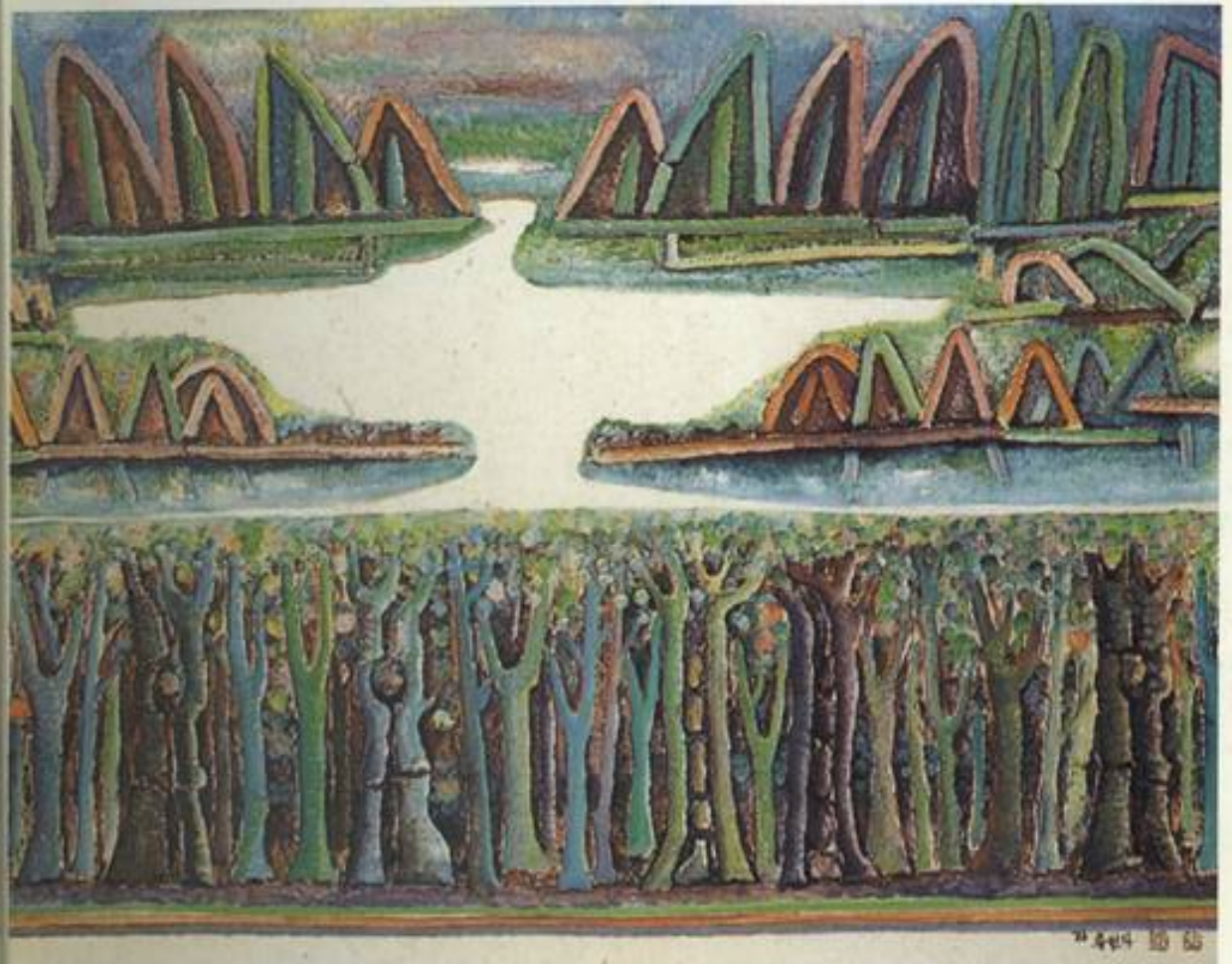
- 가정의 설탕 대용품
- 커피, 우유, 국산차, 과일화채, 각종 요리시 설탕 대용으로
- 콜라,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
- 파자, 캔디, 썸 등의 제과류
- 캔커피, 커피믹스, 코코아믹스 등의 분말 다류
- 아이스크림, 사뱃, 푸딩, 유산균 음료 등의 디저트식품
- 당외정, 씹어먹는 의약품, 시럽



MIWON (주)미원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여성



특·집

- ① 96년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업계획
- ② 96년도 회원단체 사업계획

96-3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국내최초의 아기용 전문두유, 베지밀 소이



영양이 풍부한 두유액에 아기의 발육에 중요한 메치오닌과
비타민 미네랄 등 18종의 영양소를 균형있게 보강하여
특수영양식품 허가(복지 제33-1호)를 받은 제품으로
베지밀 소이만으로도 아기를 건강히 키울 수 있습니다.

- 콩에는 DHA의 전구물질인 α -3계열의 라놀렌산이 9%나 함유되어 있어
베지밀 소이로부터 DHA를 합성하여 적당량을 공급하므로 자능이 좋은
어린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 베지밀 소이는 유당 성분이 없기 때문에 유당으로 인하여 모유,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당불내증 아기에겐 더욱 좋습니다.
- 베지밀 소이는 대두 올리고당과 섬유소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유아들의 장내
유용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의 번식을 도와 배변이 좋아집니다.
- 비오틴, 인지질 등 생리활성물질을 보강하였습니다.

◆ 특수영양식품허가: 복지 제 33-1호

베지밀 소이의 영양성분 조성(100ml 당)

단백질: 2.694g 지방: 3.315g 탄수화물: 7.459g 비타민A: 238IU. 비타민 B₁: 0.06mg 비타민B₂: 0.07mg 비타민B₆: 0.06mg 비타민
B₁₂: 0.28μg 비타민C: 8mg 비타민D: 46IU. 비타민E: 1.5mg 비오틴: 2μg 엽산: 6μg 나이아신: 0.8mg 칼슘: 51.8mg 인: 41mg 철: 1.5mg
아연(제텐): 0.5mg 마그네슘: 12.4mg 인지질: 18.6mg

어린이 및 젊은이용



베지밀C

· 베지밀C는 두유성분과 우유성분을 혼합하므로
써 자연스레 동·식물성 영양성분이 서로 합성
되어 인간에게 균형잡힌 영양을 제공하는 맛있
은 우유대체 식품입니다.
· 베지밀C는 (주)정·식·품 중앙연구소에서 22가
지 우유와 두유제품을 비교, 발육연구를 실시하여
그 중 최상등 유제품을 선정한 동·식물성 혼합유액
으로 성장기(어린이부터 30세까지) 발육을 활성
화 해주는 제품이며, 그 결과를 1993년 제3회 국
제식품학회(인도 아이소이)에 발표하였고 1994
년 국제대두심포지움학회에 전시하여 대 환영을
받았습니다.
· 베지밀C는 1995년 미국과 호주에서 발명특허
를 획득하였습니다.
● 미국특허번호: USP5413803
● 호주특허번호: No. 654241
● 한국특허번호: No. 093635

정통순수두유



베지밀A 베지밀B

· 지난 24년 동안 베지밀은 아기로부터 노인
에게 이르기까지 영양·건강식품으로 널리 사
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발전
과 더불어 급속히 식사습관이 서구화되어 비
만, 고지혈 등 동물성 식품의 부작용이 증가하
여 베지밀의 섭취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
습니다. 1994년 미국 아리조나주 메사에서 개
최된 제1회 국제대두심포지움에서 대두적으로
로 발표되었듯이 콩 속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물질인 아이소플라본, 피타스테드, 트립신인
하비타, 사포닌 등이 혈중콜레스테롤을 낮추
고 여러가지 동물성 식품의 부작용을 예방하
여 오래오래 건강과 젊음이 유지되기 때문입
니다.

월간 여성

월간여성 3월 통권338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女聲

이번 선거는/이정자

특집/① 96년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업계획

특집/② 96년도 회원단체 사업계획

6 특집/①

96년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업계획

8 특집/②

96년도 회원단체 사업계획

20 회원단체를 찾아서

가톨릭여성연합회의 어제와 오늘

22 해외여성통신

유엔, 성폭력 피해여성에게 난민지위 부여해야 한다고 선언/이영남

26 초점

4.11 총선과 여성유권자의 선택/백영옥

30 데스크에 비친 여성/①

유아대상 프로그램/손문선

34 데스크에 비친 여성/②

부활된 일일연속극/김명숙

38 여성학 지상강좌

한국사회와 매매춘 여성문제/김영란

42 폰트

누가 엄마야?/정혜진

45 여성관련통계

성별 유권자수 및 투표율

46 여성계동향/이구경

49 협의회 소식

53 우리들의 광장

이번 선거는

이정자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회장)

15대 총선을 맞은 여권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3당 통합에서 얻어낸 문민정부하에서의 첫 총선이라는 점, 민자·민주당의 두 줄기의 큰 정당에서 신한국,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 자유민주연합 등 4개의 정당으로 이합집산하여 여당 야당의 특징을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작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야당득표를 강화해준 유권자 성향이 일회성인지 아닌지 점칠 수 없다는 점, 각당의 후보 영입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 통합 선거법 제정 이후 정치신인이 대거 출진한다는 점 등이 아닌가 싶다.

이럴때 유권자의 선택은 대단히 신중해야하고 어려워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유권자는 단순한 선택의 기준을 갖고 있다. 그 기준의 첫번째는 바로 지역과 연고주의인 것이고 그에 덧붙여 인사치레의 부수적인 이익이다.

유권자의 표는 정국안정과 민주화를 위한 물갈이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얻어 연속선상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정국안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야당에게 많은 표를 주어 견제와 균형, 개혁이 있는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나아가 새정권을 창출하는 표의 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유권자의 시대관이 필요한 시점이 된다.

나의 딸이 중학교 때 반장 선거에 나가면서 쓴 연설문을 읽은 기억은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찡하다. "나는 지금까지 절반장밖에 못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에는 '처음'이라는 경험이 없이 '두번째'라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처음' 출마한다는 것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요지였다. 무명의 좋은 지도력이 정치활동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후보자의 인물을 잘 살피는데에 또한 유권자의 큰 의무가 있다고 본다. 기성정치인의 평가는 그가 썼던 감투에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에서의 그의 잘잘못을 가려야 할 것이다.

경비, 청소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여성 사업가는 큰 건물의 청소 수주에 있어서도 정치인의 입김이 다 달아있더라는 것이다. 이 여성은 좀 더 나은 서비스와싼 값으로 경쟁적 참여를 해보겠다고 제안하나, 이 정치인을 무시할 수 없어서 대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듣는다고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손잡고 있지 못한 사람은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며 이 현상과 정치인의 활동자금이 유관하다는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볼 수 있는 정경유착의 작은 예라는 것이다.

뜻있는 신인 출마자들이 빛을 격정부터 먼저 하고 있다. 당선이나 낙선이나는 두번째 관심이고 빛을 지면 안되는데 하는 것이 주변사람들의 걱정이 되고 있다. 의원 월급이 그들의 주수입이라면 선거로 진 빛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빛쟁이가 어떻게 정당당한 의원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의 걱정이 있다.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유권자는 정말 돈안쓰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선거 행사는 나라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행사로 여기고 무표를 신중하게 할 것을 다짐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얼마나 잘먹고 잘사느냐 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집

① 96년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업계획

② 96년도 회원단체 사업계획

96년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업계획

1996년도 여협은 제33회 전국여성대회를 비롯, 여성정치참여 확대사업, 소비환경실태 및 의식조사, 가정소비생활 등 건전사회분위기 조성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교육, 국제회의 참가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조직관리사업

1. 조직확대 및 회원단체 육성·지원
회원단체들에게 각종 사업비를 지급하며 연말에는 창립기념행사를 겸하여 친목도모 송년모임을 갖는다.
2. 회원단체와의 유대강화
회원단체 실무책임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신입회원단체를 위한 가입축하회를 갖는다.
3. 지방여협과의 연대사업

여성지위향상사업

1. 제33회 전국여성대회
삼천여명의 여성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바람직한 여성운동의 방향과 정책들을 제시하고 여성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제33회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 반영되도록 촉구하며 여성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응집력을 키워 나가고자 한다.

2. 지도자 연수

여성단체 지도자간의 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여성단체의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금년 4월 2일~3일 1박2일간 지도자 연수를 실시한다.

3. 매스컴 모니터링 사업

대중문화를 선도해가고 있는 매스컴이 여성의 성을 왜곡하여 성의 상품화를 조작하고 대중의 인기에만 치중한 과도된 여성상을 보여주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매스컴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신규 모니터를 모집하여 교육하며 정기적인 월례모임을 갖고 토론하여 이를 각계에 송부하여 시정, 반영토록 한다. 또한 모니터 재교육 및 워크샵, 드라마 작가와의 간담회도 열고 방송관련 세미나 개최 및 자료집을 발간한다.

4. 여성정치참여 확대사업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 성명서



발표등 각종 활동을 꾸준히 전개한다.

5. 여성정책 간담회

정부 각처의 장관 및 여성관련 인사들을 초청,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듣고 여성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제관계사업

1. 국제회의 참가
UN 40차 여성지위위원회 및 I.C.W 집행위원회, UN Human Settlement에 참가한다.
2. 주한대사부인 초청간담회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 부인들을 초청해 한국여성계 활동 및 여협활동을 소개하고 국제적인 우의를 다진다.
3. 재일대한민국부인회 초청간담회

근로여성사업

1. 근로여성고발창구 운영
직장내에서 남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의 문제를 연중 전화상담, 직접 방문등을 받아 해결방안을 상담해 주고 있다.
2. 근로여성 세미나
근로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3. 조사연구사업
주부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주부의 경제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요구조사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4. 근로여성간담회
5. 취업여성의식향상 교육

소비자보호사업

1. 교육사업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교육(연 11회), 모니터교육(연 1회)을 실시한다.

2. 조사연구사업

소비환경실태 및 의식조사를 연 3회에 걸쳐 실시하며 건전가정의례를 위한 조사사업 및 세미나를 열고 건전소비생활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3. 소비자세미나

소비자보호세미나를 개최한다.

4. 물가조사

매주 화요일 소비자모니터들은 서울시내 50개시장에서 55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실시한다.

5. 소비자주간 전시회

출판공보사업

1. 「여성」지 발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의 교육, 정보자료로서의 기능을 하는 월간 「여성」을 연 11회 발행한다.
2. 「Korean Women」 발간
한국 여성계의 중요 움직임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Korean Women」을 연 1회 발행한다.
3. 홍보활동 및 정보교류, 기자회견
4. 도서구입 및 자료교환
5. 도서자료실 정리

특별사업

1. 가정소비생활 등 건전사회분위기 조성사업
가정의 소비생활 선도활동 및 시민의식의 국제화를 유도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건전소비생활과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한다.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교육 및 지방순회 홍보
3. 여성정보활용 교육

96년도 회원단체 사업계획

1996년도 여협 33개 회원단체들은 각기 단체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직활성화, 국제교류, 봉사사업, 세미나 및 캠페인 등을 펴나갈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

1. 기구조직의 활성화

기구조직의 개편을 검토하고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직원, 실무자연수 및 교육실시, 회원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대한간호협회 70년사를 발간한다.

2. 회원자질향상 및 복지증진

간호사 국가시험원 설립과 보수교육 관리강화 및 관련법 개정 건의, 보수교육 관리 전산체계를 확립한다. 회원장학사업을 활성화하며 제7회 간호학술상을 공모, 시상하고 회원권의 옹호를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3. 간호사 역할 확대 및 윤리의식 함양

간호사의 역할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전문간호사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며 한국간호사의 윤리강령을 활용 추진하고, 올해의 간호인 상과 나이팅게일기장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4. 간호교육수준 향상

간호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 승격을 추진하고 전문대학 간호교육 평가인정도구 분석 및 토론회, 간호교육 실태조사, 독학사제도 개선토론회를 개최한다.

5. 병원간호사 업무수준 향상



간호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하며 병원 간호인력별 직무지침을 사용 권장하고 병원 간호인력 확충과 병원표준화 간호부분 심사기준 검토 및 병원서비스 평가제 간호부분 심사에 참여한다. 또한 한방병원 간호업무의 개선을 추진한다.

6. 공공 및 지역사회 간호사업수준 향상

보건간호 인력별 직무지침의 적용을 추진하며 학교간호업무 개선을 실시하고 중앙 및 지방행정조직에 전담부서 설치 추진 및 보건진료소 업무향상과 보건진료원 지도자 배치를 확대한다.

7. 간호사업 홍보 및 유대강화

협회 국·영문 요람 및 팸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협회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한다. 복지시설 후원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제2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간호관련 단체장 협의회를 운영한다.

8. 신문, 출판사업의 강화

신문발간체계를 강화, 출판체계를 강화시키고 「대한간호」를 발간하며 간호문학상을 공모, 시상하고 신문창간 20주년 기념식 및 행사를 개최한다.

9. 연수원 운영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검토하고 홍보 및 영업을 활성화 한다.

10. 국제교류사업의 활성화

파독 간호사 30주년 기념식에 참여하고 사회주의 국가 및 북한 간호계와의 교류 추진 및 한·중 지도자 포럼을 개최한다.

ICN 서울총회 7주년기념 학술대회 개최, 제22차 국제중간간호사 워크샵 참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확대한다.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1. 금주·금연·마약퇴치 캠페인

금주·금연·마약퇴치 캠페인과 팸플렛을 배포한다.

2. Y.T.C 행사

금주·금연·마약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 및 웅변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여학사협회

1. 강좌 및 패널토의, 세미나

여학사 특강과 공개토론회 및 세미나를 실시한다.

2. 운영 노인교실

60세 이상의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취미생활, 국악, 가요, 고전무용, 견학, 수학여행, 레크리에이션, 봉사활동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3. 영어공개토론회(KAUW Forum)

1월에서 4월까지 매월 셋째 목요일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Communication - Information Highway(1/18), A New Look into Family Structure(2/15), Preventive Measures of Social problems : Aids, Drugs, etc(3/21), My personal Expectation and Hope in the Coming Century(4/18) 이다.

4. 출판, 홍보사업

계간으로 협회소식을 발간하고 세계 각국 여학사협회에 KAUW News를 연 1회 발송한다.

5. 봉사사업

불우이웃돕기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6. 국제관계사업

국제친선다과회(International Tea Party)를 9월에 개최한다.

7. 지부와의 유대강화사업

지부 육성을 위한 지부 순방을 하고 문화유적을 답사한다.

8. 특별사업

제3회 알뜰 바자를 개최하고 제2회 여학사 합창 발표회를 11월에 실시한다.



대한조산협회

1. 조직강화

회원증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조산원 자율 지도, 감독을 강화하며 지부운영관리 및 지부조직을 활성화한다.

2. 회원의 자질 향상 및 조산교육제도 개선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며 조산 수습기관의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조산수습기관의 교육을 강화하며 출산 교육자 교육을 운영한다.

3. 회원 권익 옹호 및 복지사업

의료정책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복지사업을 전개하며 유휴 조산인력 활성방안을 모색한다.

4. 조산원 활성화 및 모자보건사업

조산원의 역할 및 영역을 확대해 나가며 조산원 시설의 현대화 및 합동조산원 운영을 권장하고 조산원의 홍보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모자보건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5. 협회지 발간 및 홍보사업

협회지를 발간하고 언론기관을 통해 조산사업을 홍보함과 동시에 조산학 연구논문 발표와 조산 수습기관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협회 활동을 홍보한다.

6. 국내 및 국제교류

유관단체와의 교류 및 유대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제24차 ICM국제대회 참석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7. 기타

복지시설과의 결연사업을 실시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후원을 하며 건축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바자회를 실시한다.

여성문제연구회

1. 교육 및 조사연구사업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여성노인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세미나 및 워크샵, 연구지·소식지 발간, 임원연수와 44주년 기념강연회를 실시하고 바론 문화가꾸기운동을 연중 수시로 개최한다.

2. 출판 및 장학사업

연구지와 소식지를 발간하며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전개한다.

3. 사회복지사업

거택보호자, 탁노소 및 유니세프를 지원한다. 또한 남성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상담활동을 전개한다.

4. 기타

국제교류사업 및 여성문제연구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부인회

1. 창립 43주년 기념행사

창립 43주년을 맞아 회원 작품전시회 및 바자회를 열고 알뜰시장 개최와 어린이집 합주단 연주회를 연다.

2. 여성의 기능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한복, 꽃꽂이, 손뜨개, 행사별 선물포장법, 여성 소규모 경영자 교육 및



주부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을 실시한다.

3.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사업

생활영어교실 운영과 종이접기교실, 붓글씨교실, 사진교실, 한문교실을 운영한다. 수시로 노래 바로부르기대회 및 연2회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다.

4.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영유아보육사업과 여성복지사업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탁아방을 운영하고 미취학 아동의 전일교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건강관리를 위한 수지침, 노인치매 예방 및 간호교육, 정신지체자 수용시설 방문 봉사를 실시한다.

5. 국제 친선 및 교류사업

연변 조선족 여성들의 기능교육 연수 및 일본 因島市와 친선교류를 실시한다.



3. 후원회 사업

충주성심학교 학생교육비를 후원하고 방문하며 성소후원, 요셉의원 후원 및 신양대학 후원회를 결성한다. 또한 은퇴사제와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기타 각종 후원 사업을 전개한다.

4. 홍보활동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 30년사와 회보를 발행하고 매스컴활동을 통해 홍보를 전개해 나간다.

5. 봉사활동

불우시설 요청에 의한 노력봉사 및 요청에 의한 수의, 염가 제공을 한다.

6. 평화증진 및 국제친선

국제적인 유대를 위한 공동 행사에 참여하고 국제교류 및 친선을 도모한다.

7. 환경보존 및 소비절약사업

환경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속에서의 에너지절약과 가전제품의 안전조작법에 대해 교육한다.

가톨릭여성연합회

1. 지도자 양성 및 훈련

회원연수회와 각교구 여성대표자 심포지움에 참석하고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타기관의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도자 훈련을 강화한다.

2. 신앙교육 및 문화사업

가톨릭여성신앙대학을 개강하고 외국어교실을 열어 영어, 불어, 일어 회화반을 운영한다.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1. 행사

촛불의식의 밤을 통해 BPW사업 및 현황을 소개하고 국제적인 관계를 긴밀히 가지며 제3회 Gold Award를 시상한다. 또한 6월에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2. 홍보, 출판사업

월회보 및 BPW홍보 리플렛을 발간하고 10월에는 여성직업 100선 단행본을 편다.

3. 퇴직여성진로모색을 위한 세미나

퇴직여성의 진로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4. 상담창구개설

전문직 여성의 고충과 불편사항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한다.

5. 캠페인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한다.

6. 연대사업

할당제도입을위한여성연대, 성희롱대책연대, 공명선거실천 및 부패추방운동 등의 연대사업을 연계해 나간다.

한국부녀복지연합회

1. 정책건의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처우개선과 인건비 현실화 지급에 관한 건의 및 부녀복지시설 운영비 및 입소자 생계비 등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요구, 촉구한다.

2. 세미나

제28회 부녀복지세미나와 제10회 청소년 수련회, 부녀복지 지도자세미나를 개최한다.

3. 출판, 홍보사업

생활수기집 '푸른하늘'을 발간하고 시설운영규모, 종사자 현황, 수용인원 현황 등을 조사하여 시설운영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부녀복지시설을 지역사회 및 관련 각계각층에 홍보한다.

4. 월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관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부업, 취미교실, 도서실을 설치하고 재가복지사업을

전개하며 상담실 및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한다.

5. 시설순회

각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산하부녀복지시설을 방문한다.

6. 기타

시설장 및 모범직원, 모범시설 입소자를 시상하며,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1호선 신문판매사업을 운영하고 선도보호시설사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한국우먼스클럽

1. 불우아동사업

결연을 맺은 불우아동, 지체부자유 아동들에게 후원금을 매월 보내고 어린이날과 연말에는 복지원을 방문한다.

2. 국제, 문화사업

청소년 회원 대표들이 7월말부터 열리는 국제교류대회에 참가하고 외국인 장학생을 선발한다.

3. 소비자사업

지혜로운 가정생활, 여성들의 생활정보 교환에 관한 소비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4. 교육 및 교양강좌

회원들의 교양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와 이사 및 임원교육을 실시한다.

5. 성아지 발간



매년 성아지를 발간한다.

대한약사회여약사회

1. 전국여약사대회

제23차 전국여약사대회를 개최한다.

2. 약대 졸업생 오리엔테이션

전국 20개 약학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반기에 실시한다.

3. 장학사업

전국 약대에서 약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한다.

4. 여약사가족초청간담회

여약사가족초청간담회를 실시한다.

5. 청소년선도사업

마약류 추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청소년문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6. 여약사탁구대회

여약사의 단결, 화합을 도모하고자 탁구대회를 개최한다.

7. 소비자 단체와의 유대강화

소비자 보호운동 참여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 및 소비자 단체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보호운동에도 참여한다.

8. 비개국 여약사의 회무참여활성화 및 직능개발

비개국(병원, 생산, 공직) 여약사들의 학술강좌 지원과 비개국 여약사 간담회를 실시한다.

우리웃협회

1. 우리웃 입는 날 행사

6월에 전국 우리웃 공모대제전 및 우리웃 입는 날 행사를 개최한다.

2. 세미나

회원대상 교양세미나를 3월, 10월에 실시한다.

3. 친목행사

회원단합을 위한 야유회를 개최한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1. 계몽 학습회

우리전통 음식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강의와 식생활 영양개선 계몽 및 합리적인 조리교육을 실시한다.

2. 전문조리기능사 양성교육

연구회 부설 한국조리직업전문학교를 통한 한식과 양식 조리기능사를 양성, 배출하고 무자격 조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통신편육 및 업소방문 이동강의를 실시한다.





3. 간행물 발간 및 홍보활동

'96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식단 교재 발간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4. 식생활 행사

단체급식소 조리원 교육 및 주부고용촉진 단기 적응훈련, 콩음식 강습·시식회, 축산물 요리교육, 학교순회 향토식단개발교육, 제5회 전국 수산물 요리솜씨대회를 개최한다.

5. 회원지도

매월 회원지도 강습회를 실시한다.

국제존타한국연합회

1. 국제존타한국지역연합회대회

5월에 부산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2. 국제사업

제53차 국제존타대회에 참석한다.

3. 세미나

소득 1만불 시대에 걸맞는 행락문화, 관광문화에 대한 교육 및 토론회, 세계평화를 위한 우리의 변화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4. 국제, 국내 봉사사업

국제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며 UNICEF 후원, 재한 외국인근로자돕기등 국제봉사사업, 독거노인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법의 날' 소년원 방문 등 국내의 봉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1. 교육사업

회원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자 교육과 자기개발 및 사회봉사의 지도력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질서의식 및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세미나와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다.

2. 조직관리

지도자 연수 및 회원 연수회를 개최하고 지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회방문을 실시한다.

3. 사회복지사업

장애자 및 불우이웃과 무의탁 노인, 양로원 방문 등을 실시한다.

4. 국제교류사업

6월에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석하고 국제여성 단체 및 GFWC회원간의 교류를 추진한다.

5. 지역사회활동

환경보호사업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6. 홍보사업

언론기관을 통해 사업을 홍보한다.

대한영양사회

1. 조직강화

회원등록을 확대하고 회원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21세기를 대비한 조직 정비 및 개편을 실시한다. 또한 전국 영양사 지도자대회개최와 대표자회의 개최, 사무장의 교육실시 등 조직관리 회의를 강화하고 지부조직운영 활성화지원 및 영양사회 이미지 개선작업을 실시한다.

2. 전산관리

영양사 및 일반인 대상의 급식관리 및 영양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회원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3. 국가 영양정책 및 영양사 정책

영양제도 관련법을 개정하고 국민영양 전담부서 및 국민영양연구소를 설립한다. 영양사 인력 수급대책마련 및 관련기관과의 사업협조체제를 구축한다.

4. 교육 및 조사·개발 연구사업

분과별 전문교육과 워크샵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시범보건소 영양사교육, 제3기 언론 및 제2기 식품모니터요원 교육, 지부 신규영양사 교육을 개설한다. 또한 학교급식, 영양상담료 의료제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한다.

5. 출판

월간 '국민영양'을 연 10회 발간하고 대한영양사회 학술지, 영양사 수첩, 급식관리지도서 및 질환별 식단집, 식품모니터 모음집, 언론모니터 모음집 등을 제작하고 위생관리 지침서를 제작한다.

6. 국제교류

제2회 아시아 영양사대회와 제12차 세계영양사 대회에 참석하고 10월에 일본 동경에서 있을 영양개선학회 및 미국 ADA의 annual Meeting에 참석한다.

7. 홍보활동

언론기관에 대한영양사회활동 홍보 및 대학별 재학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8. 회원건립사업

부지확보 노력 및 약정운동을 계속하고 특별모금을 홍보한다.

국제여성승공연합

1. 교육

전국 시, 군, 구 회장단 교육 및 임원강사교육, 서울시 25개구 순회교육, 서울시 각구 여성회장단 교육을 실시한다.

2. 캠페인

순결지킴이운동과 효 회복운동을 전개한다.

3. 해외연수 및 대외활동

7월 내지 8월중에 유럽연수를 갖고 대외적으로 타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4. 세미나

순결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한 세미나 및 환경 및 자원보호를 위한 물자절약 토론회를 갖는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1. 회원관리 및 복지증진 강화

회원의 정기신고실시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회원수첩을 제작, 배포하고 회원취업활성화를 위한 유휴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고용조건과 업무 문제의 상담을 활성화하고 단체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등 회원관리 활동을 전개한다.



2. 회원권의 증진 및 처우개선 사업

치과위생사의 업무개발 연구 및 제도화를 추진하며 학교보건법 개정 연구를 실시하고, 의료관계 법규 개정과 회원경력인정 및 6대시 보건소 배치 등을 추진하며 치과진료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연구한다.

3. 치과위생사 교육수준 향상

치과위생사의 교육실태 및 워크샷을 개척하고 교육제도 개선을 연구하며 국가시험의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4. 회원 보수교육 강화 및 학술대회 개최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과 시행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의 심사기준 및 제규

5. 위문, 견학 및 불우이웃돕기

군부대 장병위문을 통하여 사기를 고양시키고 안보현장과 주요산업현장을 견학한다. 또한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을 전개한다.

6. 창립기념행사

창립 4주년 기념행사를 경제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1. 생활협동조합조직

농촌과 도시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일환으로 우수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우수농산물 알리기운동을 전개한다.

2. 농촌봉사활동

농촌의 무의탁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을 돕기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농촌의 일손돕기운동, 고향사랑, 농촌사랑 캠페인,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한다.

3. 여성복지증진사업

'취미반'을 운영하여 공예, 분재, 지점토, 꽃꽂이, 국악, 영어, 홈패션, 요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부대학의 수료생을 교육한다.

4. 건전소비활동전개

우리먹거리지키기운동을 전개하여 우리농산물 애용운동을 펴고 건전소비를 위한 회원교육을 실시한다.

정을 개정하며 제17회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5. 국제교류 증진사업

국제치과위생사연맹과의 교류를 증대하고 각국의 협회와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국제학회 및 심포지움에 참석한다.

6. 신문, 출판사업

연 6회 '치위협보'를 발행하고 협회 안내서 및 협회 20년사 출판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7. 국민구강보건 계몽사업

시도회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구강보건계몽용 자료를 제작, 배포하며 회원의 참여를 확대한다.

8. 홍보 및 정보수집 활동강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의 강화 및 지역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유관단체, 기타 기관과 원활한 교류를 추진한다.

한국통일여성협의회

1. 통일촉진사업

남북 민간교류를 위한 협력단을 6월에 창설한다.

2. 동질화 사업



제3차 통일문화세미나를 7월에 실시하고 북한사회연구 강좌를 개최한다.

3. 회원자질 향상

통일연수원 위탁연수를 이사와 운영위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통일연수원 1박2일 단체대회를 가지며 북한 영화관람 및 판문점, 통일전망대, 백두산 등을 견학한다.

4. 교류활동

통일유관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나가며 재일 조선인 여성동맹과 민단부인회와의 협의를 펴 나가고 중국 연변 통일여성협의회 지부를 설립한다.

5. 연대활동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및 UR대비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 남북 인간띠 잇기, 환경운동, 쓰레기종량제실시, 주변환경정비활동 등을 펴 나간다.

한국퇴역여군회

1. 조직력 강화

조직력의 확대를 기하고자 여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로 회원가입을 독려한다.

2.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건전한 소비생활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 및 계몽활동을 전개한다.

3. 환경보존운동

환경보존실천운동 및 교육을 통해 환경친화적



가치관과 태도를 갖게한다.

4. 자질향상

각종 연수회 및 세미나, 해외연수를 통해 회원들의 전문을 넓히고 자질을 향상한다.

5. 농촌환경보전활동

농촌 현장봉사로 폐비닐 수거, 농약 빈병 회수, 하천정화 등을 실시하고 분위단위 활동으로 가정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 폐식용유등 공해유발물질의 재활용 활동을 한다.

6. 기타

회원간의 친목도모행사 및 '고향주부모임' 소식지를 발간하고 고향주부모임 상징물을 개발한다.

한국자수문화협의회

1. 전시사업

전문적이며 심도깊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

2. 교육, 문화사업

제3기 자수예술대학을 개최하며 미래의 자수예술을 주도해 나아갈 인력양성을 도모하고 교사간담회를 개최한다.

3. 홍보, 출판사업

연 2회 회보를 발간하고 전시도록, 자수도안집, 달력과 카드를 제작한다.



4. 특수사업
자수문화 상품을 판매한다.

한일여성친선협회

1. 교류사업
한일여성 합동총회 및 연수회를 10월에 서울에서 갖고 동경본부, 도찌지회, 관서지회 총회등에 참석하며 후쿠오카지회 오끼나와, 미야코를 방문한다.
2. 기타사업
일본내 지회중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일본지도층 인사들과의 간담회, 재일동포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한중여성교류협회

1. 국제행사
5월에 한중국제강연회를 개최한다.
2. 기타사업
중국대사 초청강연회를 3월에 가질 예정이며 세 차례에 걸친 오찬 강연회, 회원단합대회, 회원증 가운데 등을 실시한다.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1. 교육사업
정기적인 강좌로 언어교실, 교양교실을 열고 실기강좌로는 도자기교실과 매듭교실을 연다.
2. 자원봉사 및 바자회
장애자, 양로원, 영아원을 방문하며 제2회 장애자 돕기 찻갈바자회, 생필품바자회, 1일찻집을 연다.
3. 세미나
시민의식의 국제화 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 세미나를 4월에 개최한다.
4. 산악회 운영
매월 첫째 목요일에 산악회를 운영하며 산행시 환경정화운동을 병행해 실시한다.
5. 소식지 발행
주부경제문제, 여성계의 주요이슈, 연구소 소식 등을 실은 소식지를 발간한다.

한국여류시각디자이너협회

1. 시각디자인 문화전시사업
회원전 개최, 타협회 전시에 협조 및 지방도시에서 초대전을 갖고 서울문화상품진흥관련 전시에 공모한다.

2. 시각디자인 교육사업
일러스트, 광고, 포장 등 시각디자인에 대한 관련교육을 실시하며 교직에 있는 회원을 위한 담당강의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3. 국제사업
제2회 해외전을 터키에서 전시할 계획이며 국제 그래픽전에 공모한다.
4. 여성지위향상사업
여협 사업에 협조하고 여학생 지도를 위한 전시를 유치한다.

한국여성정보인협회

1. 정보문화진흥사업
정보문화의 달 기념행사 및 정보문화마인드 보급 및 계몽을 추진한다.
2. 학술행사
정례학술행사를 연 4회 갖고 분과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3. 여성전산인력정보 공공 DB 서비스 극대화
여성전산인력정보 공공DB서비스를 개시하고 서비스 회원을 적극 유치한다.
4. 문헌발간사업
여성정보인 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정례 학술 행사자료집, 분과위원회 세미나자료집, 기타 비정기 간행물을 발간한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1. 불교문화진흥사업
불교교양강좌를 열고 직장여성과 유아원에서 강좌를 연다.
2. 사회복지사업
무의탁 양로원, 유아원,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방문, 일선장병위문 및 청소년 교육강좌를 갖고 청소년 장학금을 수여한다.
3. 시민 도덕성 회복사업
전통문화 계승강좌, 절서지키기, 인사하기, 음란 비디오 추방운동을 전개한다.
4. 교화 및 사회사업
환경보호운동과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한다.
5. 출판, 홍보사업
여불연 신문을 간행하고 여성교양자료를 배포한다.

천도교여성회본부

1. 창립기념행사
제72주년 창립기념행사를 3월 25일에 갖는다.
2. 봉사활동과 수련회
매주 목요일 국립재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전국교역자 수련회 및 동계, 하계 수련회를 개최한다.
3. 회보발행
여성회보를 발행한다.
4. 판매활동
생활필수품 및 폐유 비누를 제작한다.
5. 성지순례 및 정화작업
9월에 성지순례를 하고 성지정화작업을 실시한다.



박애주 회장

가톨릭여성연합회의 어제와 오늘

이제 가톨릭여성연합회는 93년, 30주년을 보내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30여년 전 스스로 사회와 교회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단체를 만들었듯이 30년의 세월을 밑거름 삼아 거듭나는 가톨릭여성연합회가 되고자 한다.

태동기

가톨릭여성연합회는 1963년 몇몇 가톨릭 여성들의 모임으로 태동했다. 당시 사회상으로는 여성의 사회 참여나 활동은 극히 저조했으며, 그것은 교회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63년 오지리 부녀회가 한국을 방문해 가톨릭교회 여성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졌는데, 이때 오지리 부녀회의 활동상을 들은 여성들은 한국 교회에도 여성 단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게 됐다.

명동성당 부인회 신자들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 여성모임은 1963년 11월 19일 당시 서울대교구장이던 노기남 대주교의 인가를 받아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가톨릭 부인회를 출범시켰다. 이것이 가톨릭 여성연합회의 전신이다.

가톨릭부인회는 먼저 교회 내에서 그 존재를 알리고 더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여성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가정에만 묶여있던 여성들의 시각을 사회로, 혹은 교회로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문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고, 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가톨릭 지성인들을 모으기 시작하여 교수들 비롯한 전문직 여성들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

발전기

70년대에 들어서 한국 사회는

조국 근대화의 기치 아래 산업화의 물결이 밀려 오자 기존의 가치관과 사회 규범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가톨릭부인회는 가톨릭여성단체 서울대교구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했다. 매일 각 본당의 부인회 대표자들이 모여 본당 상황을 나누고 수도자와 사회명사를 초청해 신앙강좌와 교양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먼저 당시 여성연합회의 사회적 활동을 살펴보면, 청소년 문제나 여성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 8월 세계 기아해방운동을 위한 대표자들이 방한했을 때, 기독교 여성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세계 대표들을 가정으로 초대해 한국의 삶을 보여줬으며, 우리나라 안내를 맡아 우리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1972년에는 사회변천과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교회 내외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여성 실무자 교육에 참여, 여성 활동가를 양성하기도 했다.

또 가족법 개정을 위한 준비모임이나 가족법 개정 강연을 위한 지도자 훈련에도 참여, 여성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불우 시설을 방문해 노력봉사하는가 하면 장학금을 전달해 미래의 꿈나무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소비자 문제, 건전한 사회문화를 열어가는데 여성의 참여를 높여왔다.

비디오 문화의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미나를 비롯, 좋은 비디오보기 보급, 좋은 비디오 권장을 위한 모니터교육, 건전 사회 만들기 세미나 등은 여성연합회의 주된 활동이라 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여성연합회의 많은 활동 중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한국 여성들을 세계에 알린 일이다. 1982년 세계여성대회 참가한 이래 매년 여성대회에 참가해 한국 여성들의 활동을 알린 결과 1983년 세계여성협의회 정회원국이 되었으며 87년 세계대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임되었다.

앞으로 여성연합회는 환경문제, 생명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다.

여성연합회는 이처럼 사회 활동에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교회내에서의 자리 매김은 더욱 확고해졌다. 교회의 발전을 위해 평신도들의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를 이끌어갈 목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느낀 여성연합회는 신학교 후원을 조직,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다.

1984년은 한국에 천주교가 전래된 지 2백주년이 되는 해였던만큼 여성연합회는 2백주년을 맞는 신자들의 자세를 가다듬는 한편 교회사 강의 시간등을 마련해 공부하는 여성상을 만들어 나갔다.

사회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성 신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의 역할과 위치는 남성신자에 많이 뒤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긴 여성연합회는 1991년 4월 1일 가톨릭여성 신앙대학을 개설해 교회 여성들의 의식 개발과 교육을 하고 있다.

각본당 실무자 연수나 여성대표자 연수, 그리고 가톨릭여성 심포지움은 교회내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여성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어 강좌는 회원들에게 인기가 높는데 외국어 강좌를 수료한 많은 회원들이 88 올림픽이나 2백주년 기념행사, 성체대회, 그리고 아세아 평신도 대회 등의 국제적인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이제 가톨릭여성연합회는 93년, 30주년을 보내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30여년 전 스스로 사회와 교회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단체를 만들었듯이 30년의 세월을 밑거름 삼아 거듭나는 가톨릭여성연합회가 되고자 한다.



유엔, 성폭력 피해여성에 난민지위 부여해야 한다고 선언

이영님 (연합통신 외신국 차장)

강간이나 성폭력의 피해자, 할례의 공포에 떨고 있는 여성들이 모국을 탈출할 경우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유엔이 선언했다.

성폭력 피해여성에 난민지위 부여 마땅... 유엔 선언

강간이나 성폭력의 피해자, 할례의 공포에 떨고 있는 여성들이 모국을 탈출할 경우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유엔이 선언했다.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UNHCR)은 지난 2월 23일 16개 서방국들이 참가한 이틀간의 회의를 끝내면서 여성들이 "성을 근거로 한 박해"로부터 국제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공식 확인하고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같은 권리를 난민지위 심사지침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캐나다와 미국만이 '성에 근거한 박해'를 난민지위 부여요건으로 인정해왔다.

UNHCR은 지난 51년 채택된 유엔난민규약중 난민신청자의 "박해에 관한 근거 있는 공포"를 정당화하는 요건에 인종과 국적, 종교 등 기존 요소들 외에 성폭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각국정부가 해석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UNHCR 국제보호국의 와일리무 카라고 부국장(케냐)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하는 박해를 피해 탈출하는 여성들은 그 수가 아무리 적다 해도 국경에서 돌려보내거나 난민지위를 거부당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서방국가들이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해도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여성이 대거 몰려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선택의 여지없이 어린 딸의 신체를 절제해야만 하는 특정사회의 규범에 따르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공포에 떨고 있는 여성이나 극단적인 폭력이나 성고문에 직면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세계 도처에 있으며 이들에게는 생식과 관련한 보건의 권리가 기본문제라고 지적했다.

UNHCR 국제보호국의 수석법률고문 카렌 란드그렌은 여성들이 사회적 관행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가장 흔히 박해의 대상이

되나 서방국가의 난민심사관들은 이같은 문제를 흔히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지난 93년 세계 최초로 할례 등 성에 근거한 박해를 난민요건 심사지침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전체 난민신청자 중 1%인 6백50명이 이같은 이유로 난민지위를 신청했다.

미국은 지난 95년 이같은 지침을 채택했으나 지금까지 구속력없는 이같은 지침에 따라 난민지위를 신청한 여성은 50명에 불과하다.

호주와 덴마크, 스위스 등은 이같은 지침 채택을 검토중이다.

서유럽 취업여성, 가계 절반이상 벌어들임이 일반화된 서유럽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의 60% 정도가 가계 수입의 절반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월플랜드의 의뢰에 따라 모리 마케팅연구소가 유럽지역 18~55세 직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중 평균 59%가 버는 수입은 그들 가계 수입의 절반, 또는 그 이상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8%는 가계수입의 전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가 절반 이상을, 22%는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전체의 절반에는 못미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44%, 독일 및 영국 43%,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35~37%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국가별 여성 근로자들의 가계 기여도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취업 여성의 72%가 전체 가계 수입중 절반이상을 벌어들여 기여도 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성 가운데 36%는 가계의 전부를 차지했고 11%가 절반이상, 24%가 절반 정도를 담당했으며 26% 정도만이 절반 이하를 버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여성의 가계 기여도도 매우 커 프랑스로부터 3명중 1명 이상(38%)이 가계 수입의 전부를 벌고 있고 27%가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맡는 등 직업 여성의 65%가 가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외 이탈리아 64%, 스페인 55% 등에 이르는 직업 여성들이 가계의 절반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저임의 파트 타임 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국의 경우는 취업 여성의 12%가 가계의 전부, 29%가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아직 직업을 갖지 않은 여성들의 상당수도 조만간 일자리를 구할 계획이나 가정도 잘 돌볼 수 있도록 파트 타임 등 융통성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으로 해마다 여성 60만명 사망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질병으로 해마다 60만명에 가까운 여성이 사망하며 이들 중 99%는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난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보고했다.

최근 발표된 WHO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이같은 이유로 사망하는 여성의 수는 58만5천명에 달해 과거에 추정됐던 8만명의 7배나 된다.

WHO 출산보건 프로그램 담당자인 수전 홀크 박사는 "모성사망률은 여성이 겪는 불평등을 특히 민감하게 나타내주는 것이며 이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계 신생아 출산전수의 61%를 차지

하는 아시아의 경우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사망건수가 총 모성사망건수의 55%를 차지하며 출산건수의 2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모성사망은 전체의 40%에 이른다. 반면 출산건수의 11%가 이루어지는 선진국들의 모성사망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

WHO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사망률은 유럽보다 1백%나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신생아 10만명 출생당 모성사망 건수가 2백명에 달하며 아프리카에서는 그 수가 8백70명에 달한다. 전세계를 통틀어 모성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이다.

모성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노르웨이로 10만명당 사망건수가 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63세 여배우가 최초로 神 배역

영국의 옛도시 요크에서 6백년 전부터 지금까지 4년에 한번씩 공연되는 전통 미스터리 종교연극의 신 배역이 처음으로 여배우에게 맡겨졌다.

원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이 연극은 천지창조와 예수 탄생, 그 밖에 성경 속의 일화들을 강렬한 언어로 엮어낸 것으로 중세부터 여러 직업을 가진 아마추어 배우들이 길거리의 수레에서 공연해 이 도시의 매우 중요한 공연으로 자리잡아왔다.

요즘에는 실내공연을 하고 있는 요크시의 로열극단은 이번 공연에서 신의 역할을 할 배우로 63세의 아마추어 배우인 루스 포드를 선정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할아버지가 배우였던 신학생 출신의 이 여배우는 지금 요크시에서 골동품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는 신의 배역을 맡게 된 데

대해 "매우 영광스럽고 외경스럽다"고 말하고 그러나 "나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걱정할 것은 없다. 신은 하나의 존재일 뿐 특정한 성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여사제 서품문제로 의견이 양분돼 있는 성공회의 고위간부인 요크교구의 오스틴 부감독은 "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엎는 교회의 여성화 현상이 그렇잖아도 지나친데 현대적인 정치조류가 제 정신을 잃는 선까지 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성경은 신을 남성으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현대의 페미니즘이 아닌 성경의 묘사를 따라야 한다. 로열극단의 조직은 이교행위이므로 기독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상급자인 데이비드 호프 대주교는 "연극 제작자들이 신을 어떻게 묘사하든 그것은 예술의 자유"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전국의 교회에서 놀라는 사람들도 적잖을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의견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연출자 존 도일은 "성경에는 여자와 남자가 모두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써여있다. 그러므로 루스가 여성이라는 것이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에는 신이 길고 흰 수염을 단 남자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은 버렸다. 지금 나예겐 신이란 자비심과 힘, 그리고 강력한 분노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일 뿐이다. 루스는 이 모든 자질들을 갖추고 있어 배역을 맡았을 뿐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다.

해외취업 아시아여성

매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아시아 여성들이 취업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강제 매춘 등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유엔산하의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촉구했다.

ILO는 27쪽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민 여성들에 대한 학대와 착취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골적인 매춘이 만연하고 있는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취업계약을 체결한 뒤 매춘을 강요받는 악질적인 강제매춘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년동안 아시아 일부 국가 여성들은 남성들에 이어 해외취업에 나서 많은 숫자가 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자 외국인인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착취, 학대에 특히 취약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특히 불법입국했거나 비자기간이 만료된 경우 체류국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ILO는 90년대 들어 해외에서 취업한 여성의 숫자가 공식적으로 나와있지 않지만 이들의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증거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지난 76년만 해도 해외에서 취업한 아시아인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5%가 못됐지만 지난 87년 해외 취업 아시아인 1백만명중 27%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해외에서 일하는 필리핀인중 60%가 여성이라고 추산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해외에서 일하는 여성은 남성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리랑카는 해외취업자의 84%가 여성이다.

태국의 해외취업 근로자중 여성의 비율

은 공식적으로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있지만 비밀루트를 통해 출국하는 여성의 수는 '엄청나다'고 ILO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 여성들이 해외에서 하는 일은 매우 제한돼 있어 사회 최하계층인 가정부와 간접적으로 매춘부를 뜻하는 '연예인', 식당과 호텔의 청소부, 단순조립 노동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ILO는 일본에 범람하는 수많은 불법입국 여성의 대다수가 연예산업에 여성을 이용하는 폭력조직 야쿠자들을 통해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가정부로 취업하는 여성들은 기준 이하의 임금을 받고 휴일도 없이 일하며 열악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고 과로와 성희롱에 시달리게 될 뿐만 아니라 상당수는 임금의 대부분을 중간 브로커에게 착취당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들을 보호하는 현저법은 대개의 경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정부는 재외 공관들을 이용해 해외취업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을 마련했지만 1백20개국에 흩어져 일하는 4백20만 근로자들의 보호를 맡은 관리의 숫자는 71명에 불과하다.

ILO는 이같은 현실에 비춰볼 때 해외 취업 여성들 자신이 서로 돕고 보호하는 조직을 결성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각국 정부에 대해서는 라디오와 TV 등을 통해 해외취업에 따르는 문제와 위험을 널리 알리고 불법취업자라는 약점 때문에 착취당하지 않도록 합법적인 해외취업의 길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4.11 총선과 여성 유권자의 선택

백영옥 (명지대학교수 · 정치학박사)

이번 15대 총선은 20세기에 마지막으로 치루어지는 국회의원 선거로 이번만은 세계화와 정보화의 세기적 변혁의 흐름 속에서 21세기에 통일된 선진사회의 건설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진정한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제 우리사회도 선거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법과 제도로 마련되었기에 어떠한 후보를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로 뽑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다.

4.11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5대 총선은 20세기에 마지막으로 치루어지는 국회의원 선거로 이번만은 세계화와 정보화의 세기적 변혁의 흐름 속에서 21세기에 통일된 선진사회의 건설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진정한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어리석음을 여러 번 되풀이한 전력이 있기에 더 이상 부끄러운 선택을 하면 안된다. 물론 우리의 잘못된 선거가 전적으로 유권자의 책임만은 아니다. 관권과 금권 등에 의해 국민의 주권적 의사표시를 제대로 못한 왜곡된 선거였던 탓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타락한 선거문화를 과감히 청산할 때가 되었다.

지금 세계적으로 선거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96년 3월 총선을 치른 스페인과 호주의 경우 부정 부패의 추문에 휩쓸렸거나,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한 정치인들이 선거혁명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4월과 6월에 총선을 치를 이탈리아와 영국에서도 깨끗한 정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로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도 선거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법과 제도로 마련되었다. 선거법의 개정과 지방자치의 실시로 금권과 관권으로 인한 부정선거의 여지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어떠한 후보를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로 뽑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특히 유권자의 절반을 넘는 여성들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첫째, 여성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남성대비 10%이상에 차이가 나도록 여성단체에서 투표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주도해야 하겠다.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표와 돈이다. 돈도 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임으로 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이번 선거처럼 출마자가 많아 약 5.3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서 경쟁이 심할 경우 몇백표 내지 몇십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 표가 당락을 결정짓도록 투표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겠다. 미국의

경우 정치인들이 여성유권자를 의식한 것은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70년대 이후이다. 또한 최근에는 노년층을 겨냥한 각종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노년층 인구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노인들의 투표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교포들은 수는 증가했으나 시민권을 얻어 투표에 참가하는 유권자의 수는 적어 지난 LA 폭동시 정치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 동경 도지사선거를 보면 65세 투표율은 75%이었던데 비해 25세는 25%였고, 평균은 50.1%로 장년이상이 지지하던 아오지마가 당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여성유권자의 수가 남성유권자의 수보다 많아지고 독자적으로 투표하는 여성들의 수가 늘어나자 정치권에서는 여성유권자를 의식해 여성정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성우대를 외치며 요란한 구호가 난무하나 각 정당의 지역구 공천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아직도 남성중심의 우리 정치권에서 여성우대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 20~30대 유권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들을 겨냥한 선거 홍보전과 함께 영입작전이 활발해져 각당 20~30대 후보가 20%를 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들이 정치적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여성의 투표율을 높여 정치권에 여성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돈으로 살 수 있는 표, 남편의 지시에 따라 투표하는 1/2표, 쉽게 공략할 수 있는 표가 아닌 여성 유권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투표권 행사를 대다수의 여성들이 행사할 때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여성계가 정치권에 가서 여성정책을 부탁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여성정책에 관해 여성계를 찾아다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투표율이 저조한 20~30대 여성과 대도시 거주여성들이 이번선거에는 대거 참여해야 하며 여성계도 이들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둘째, 후보자 선택에서 이번 만큼은 철저하게 옥석을 가려야 하겠다. 그렇다면 옥석을 어떻게 가려야 할 것인가?

1) 정당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정당의 역할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있는 정당 정책을 추진하며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세워 국민으로 하여금 지도자 선택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은 유권자의 후보선택에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은 서구의 정당과는 달리 특정 정치지도자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사당이며 공천작업도 일반당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정당의 이념보다 정당최고지도자의 뜻에 따라 공천을 주고 있으며 당선 가능성에 연연해 정당이념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영입하는 등 마구잡이식 공천을 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들 정당은 특정지역을 불모로 한 지역정당 성격마저 띄고 있다.

국가·사회 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위는 지역에 대한 편견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도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에 여성들이 앞장서 배격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나, 정당을 보고 후보를 선택할 경우 각 정당의 정책 특히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관심있는 분야의 정책부터 현실성있는 달콤한 선심공약인지,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정책의 경우 각 정당이 추진한 여성정책을 비교·평가하고 약속 이행여부에 따라 여성유권자의 지지를 보여주어야 하겠다.

이번 지역구 공천결과를 보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그동안 각 정당이 약속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지만 신한국당 1명, 국민회의 5명, 자민련 2명 등 정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 보다 더 여성을 대접하고, 여성과의

약속을 이행했는지를 파악해 정당선택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도 우리 정치권이나 정당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정당을 스스로 선택하고 투표를 한다는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유권자수는 많으나 바닷가 모래사장의 모래로 적당히 공략하면 넘어가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여성 유권자들도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잣대로 정당을 평가해 정치의식있는 집단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권에 확인시켜야 되겠다.

2) 후보자 개개인에 대해 비판적인 안목으로 철저하게 검증해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①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후보들에 관한 각종 자료를 참고하고 이들의 능력을 검증해 세계화시대에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하겠다. 국회의원이란 자리는 특정 정치지도자에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자리도 아니며 지역구의 경조사나 찾아다니면서 표를 얻어 차지하는 자리도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따라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들이 당선되는 풍토를 유권자들이 조성해야 하겠다. 특히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특유의 시각으로 사회문

제를 인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것도 매우 소중한 능력이다. 특히 이번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 후보들은 대부분 남성후보에 비해 자질 면이나 능력 면에서 뛰어나다. 이러한 여성들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로 정책결정과정에 우리 여성들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길이다. 지난 해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핵협상이 진행되었을 때 온 국민은 협상에 따른 여러가지 의구심과 함께 소외감을 맛보았다. 이처럼 협상이나 정책결정과정에 당사자가 소외될때 느끼는 고통을 감안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정치인을 적극 지원해야 하겠다.

② 비전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치열한 경제전쟁 속에서 통일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확고한 국가관과 미래를 무시할 수 있는 정치가를 발굴해 내야 한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충실히 준비해온 진정한 지도자를 찾아내 당선시키는 일은 유권자의 몫이다. 비전의 제시없이 당선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새시대를 열어 갈 정치지도자를 가질 수 없게 된다. 그 어느 때보다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통찰력 있는 정치가들이 필요한 시기이다.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신념과 신의를 버리는 정치꾼들을 도태시키고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후보들의 삶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③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나라에 비해 정치권의 영향력이 막강해 정치인을 잘못 선출한 경우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매우 큰 것은 전직 대통령의 비리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일반국민의 도덕적 기준보다 더욱더 엄격한 공인으로서의 기준을 세워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는데 이러한 후보에 대한 검증절차가 정치권에서는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에 유권자들이 개별후보에 대해 경력이 허위인지, 사생활이 문란한지, 경제적 비리가 있었는지, 파렴치한 범죄자들인지 파악해야 한다. 특히 돈 봉투나

식사대접 등 금품이나 선심으로 표를 사려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한다. 내가 받은 돈 봉투나 한끼의 식사대접이 수천 배의 비리로 불어나 우리가정과 내 가족의 미래를 망들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각종 후속선전이 난무하기에 유권자들은 후보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노력해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깨끗한 선거문화는 유권자의 호응없이 결코 정착될 수 없기에 여성 유권자들이 합심해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연일 개최되는 지구당대회에 참석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것은 고무적이나 이들 여성을 대상으로 선심공세를 펴는 후보가 있다면 여성들이 이를 감시·고발해야 하겠다.

④ 과대포장된 사람은 가려내 뽑아야 한다.

여론조사와 후보자 이미지메이킹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노태우의 '보통사람' 이미지로 노태우 후보를 포장해 당선시킨 과거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선거의 과학화로 돈만 주면 후보들의 과대포장이 유권자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 있어 조작된 이미지를 꿰돌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파악해 내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후보간 비교평가나 합동유세를 통해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⑤ 선거를 앞두고 달콤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이미 선거 때마다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나 그럴듯한 구호보다는 유권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후보들이 교육문제와 관련해 교육개혁의 내실화, 공교육활성화와 사교육비 최소화, 혁신적인 교육개혁(공교육제도의 정상화), 교육센터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 경우 이들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을 펼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사설학원 운영 등)를 살펴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지역 여성단체에서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초청해 정책발표회를 가져 후보차별화의 기회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아 대상 프로그램

서울에서 만 5세 아동들의 조기 입학이 허용되었다. 또 IQ(지능) 검사를 통한 우수학생의 월반을 허용한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각 개인의 성공요소는 IQ보다는 E.Q(감정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하여 E.Q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기도 한다. 이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가 하는 방법론은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교육개혁안은 21세기를 대비하여 창의력 개발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어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이 되리라 전망한다. 취학 연령이 낮아지는 것도 어려서부터 다양한 정보에 접함으로써 유아들의 사고력이 높아지는 추세를 정규 교육으로 빨리 흡수하여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링회는 1996년 첫 모니

터링 대상 프로그램으로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한 유아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이 시대의 욕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모니터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일간이었으며 프로그램은 KBS1 '하나둘셋 TV 유치원', KBS2 '혼자서도 잘해요', MBC '뽀뽀뽀' SBS '열려라 뽀뽀창고', EBS '딩동댕 유치원'이었다.

모니터 결과 KBS1 '하나둘셋 TV 유치원'이나 EBS '딩동댕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비교적 성실히 제작되고 있다고 여겨졌으나 나머지는 흥미 위주의 일과성 제작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적절치 못한 내용과 표현방식 어린이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 나름대로의 사고방식이 있고 사물에 대한 반응도 어른과는 다르다. 그러나 대상 프로그램들

에서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성인 프로의 모방이다. 어린이의 눈으로 사물을 보기 보다는 어른들이 이해하고 원하는 어린이 세계를 그려가는 점이다. 그래서 어린이의 관심사 보다는 어른들의 관심사를 어린이를 빌려서 표현하고 있다.

'뽀뽀뽀'에서 '공부 잘하는 방법'으로 '밥 생각, 엄마 생각하지마라'는 해결책을 내놓는 것(2월 3일)은 한글을 겨우 깨우친 정도의 유아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발상도 우매하고 그 나이의 어린이들에게 공부의 강박관념을 심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설혹 그 나이에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답은 공부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엉뚱한 내용을 주입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염려된다. '열려라 뽀뽀창고'는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어른

이 되면 된다, 뽀뽀기 기계에 뛰긴다, 털나는 약을 바른다, 결혼하면 된다'(1월 24일) 등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인 양 타당성없는 방법을 무책임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패션모델이 되고 싶어요'에서는 백화점에서 양복을 사주는 천사(1월 25일), '말의 유래'중 '36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위협에 처한 피터팬을 등장시켜 '불리하면 달아나라'(2월 5일)라는 비교육적이고 적절치 않은 예를 보여주 고 있다.

출연하는 어린이들의 복장도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뽀뽀뽀'(1월 31일)에서 체조하는 어린이들이 움직이기 불편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영어회화 코너의 여자 어린이는 원피스, 모자, 장갑까지 검정색으로 갖추어 입어 어린이 프로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마찬가지로 '딩동댕 유치원'의 '노래 친구들' 의상도 성인가수의 축소판이었고 '열려라 뽀뽀창고'의 뽀뽀 카메라, 뽀뽀 리포터의 의상도 어린이 의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뽀뽀뽀', '열려라 뽀뽀창고'는 눈썰매장과 스키장에서 눈썰매 탈 때의 주의 사항과 스키타는 방법 등을 보여 주었다. 요즘 스키가 겨울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으므로 어린이들에게 흥미로운 기획일 수 있으나 일주일에 걸친 특집 편성(1월 29일~2월 1일, 열려라

뽀뽀창고)은 정도가 지나친 태도로 본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아직은 일부 계층의 스포츠인 스키를 장시간 다루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할 것이다.

산만한 구성과 과장된 몸짓

어른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영유아 프로그램이어서 인지 화면전환이 빠르고 내용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예를 들면 'TV 유치원'(1월 25일) '유리'의 경우 1. 인형극 피피오 2. 명명이 3. 유리의 제조과정 4. 만화 5. 백설공주 6. 뽀뽀로 7. 꿀순이네 8. 노래 9. 짹짹 제조, 모두 9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딩동댕 유치원'의 경우도 8개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모두를 20분이라는 시간 안에 소화하기는 벅차다는 느낌이다. 어린이들의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시청하게 하기 위해서 빠른 장면 전환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나 오히려 집중력을 계속 약화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래도 'TV 유치원'이나 '딩동댕 유치원'은 하나의 주제 아래 내용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화면이 전개된다. 그러나 '뽀뽀뽀'는 단락마다 연계가 전혀 없어 보였다.

또 한편 '뽀뽀뽀'와 '열려라 뽀뽀창고'는 주제와는 관계없는 현란하고 과장된 진행이 지적되

이번 모니터링

대상프로그램은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한 유아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이 시대의 욕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모니터 결과 KBS1

'하나둘셋 TV 유치원'이나

EBS '딩동댕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비교적 성실히 제작되고 있다고 여겨졌으나 나머지는 흥미

위주의 일과성 제작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있다. '뽀뽀'의 고정코너인 '뽀뽀달 삼총사'에선 세 명의 출연자들은 현란한 색상의 복장으로 춤을 추면서 대화하고 배경으로도 디즈니 만화가 계속 움직인다. '열려라 뽀뽀창고'에서도 진행자인 홍진경이 움직이는 컴퓨터 그래픽 화면과 함께 율동을 섞어 진행하고 있다. 청적인 화면이 어린이의 시선을 붙잡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지나친 움직임은 아이들에게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뿐더러 내용의 허술함을 현란한 눈요기로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영어 한마디 코너

요즈음 유행하는 영어 조기교육 바람이 유아 프로그램에도 불어와 'TV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영어가 다루어지고 있다. '혼자서도 잘해요', '열려라 뽀뽀창고'에서는 미국인이 나와서 영어를 구사하고 있고 '뽀뽀'는 교포로 보이는 2명의 출연자가 맡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영어 발음은 정확한지 모르나 한국어 발음이 서툴러서 아직 모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먼저 모국어에 대한 바른 언어 감각이 중요하다. 영어교육이 필요하다면 한국어 발음도 확실하게 하는 진행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TV에서 듣는 맛보기식의 영어 한마디가 얼마나 아이들에



게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지 회의적인데 영어 조기교육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좀더 강화된 내용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고정된 성역할 편견 조장

초등학교 실과 시간에 남학생들이 바느질과 요리를 배우고 여학생들이 공구 다루기를 배우는 등 조금씩이나마 남녀 역할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때에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아직도 고정된 성역할을 보여주고 있었다. 'TV 유치원'(2월 6일)에서 노래 중 '키가 쑥쑥'에는 남자, '예쁜 얼굴'에는 여자를 보여줌으로써 은연중에 남자는 키가 크고 튼튼해야 하고 여자는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편견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잦은 공주의 출현은 문제가 된다고 본다. 'TV 유치원'의

'백설공주와 마녀', '양초공주', '강아지가 된 공주'와 '열려라 뽀뽀창고'의 '백설공주의 멋내기 비결',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이 있다. 이와같이 멋있는 왕자님이 예쁜 공주를 구해 내거나 결혼하는 등의 내용 전개는 여자 아이들을 연약하고 수동적으로 왕자님을 기다리는 의존적인 존재로만 부각시킨다. 남자아이들은 용감하여야 하며 항상 여자들을 도와주는 시혜자의 이미지를 간직하게 만든다. 이런 설정은 어른들의 고정관념을 답습, 계승 시킴으로서 아이들에게 남, 녀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개성있는 존재방식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 형제, 이웃 등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모방하며 영향

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상 프로그램들에서 다양한 주변인물들은 커녕 아버지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가정을 무대로 한 코너는 'TV 유치원'의 '꿀순이네'와 '혼자서도 잘해요'의 '뽀약이네' 뿐인데 그나마 구성원은 꿀순이와 엄마, 뽀약이와 엄마 뿐이다. 먹다 남은 빵을 잘 싸서 놓는 어린이를 칭찬하는 것도 엄마이며(2월 6일, 혼자서도 잘해요) 성초를 나무라는 목소리도 엄마의 목소리다(1월 24일, 열려라 뽀뽀창고). 이것은 현재 맞벌이 부부가 전체 가정의 30~40%에 이르는 현실에서 가정교육을 엄마와 아빠의 공동 책임이 아닌 엄마 혼자만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요즈음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가 없다는 개탄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아빠가 등장하지 않는 내용들은 아빠 역할을 더욱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집에 없거나 있어도 신문만 보는 아빠, 설거지하는 엄마 하는 식의 고정된 성역할에서 벗어나 청소년 요리를 하는 아빠, 설거지하는 엄마 하는 식의 고정된 성역할에서 벗어나 청소년 요리하는 아빠,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는 아빠 모습도 보여줌으로써 가정은 온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심어주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또는 이웃 등 핵가족을 벗어나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

상에 대한 경험도 다루어지길 바란다.

결론

몇몇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얼마들도 어린이들과 함께 시청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다. 'TV 유치원'은 진행자들이 안정되어 있어 과장된 몸짓이나 우스개 소리가 없어도 다양한 모습을 창출해 낸다. 또 인형들도 시선을 끄는데 애니메이션을 비롯하여 손가락인형, 부적포인형, 줄인형, 고무찰흙인형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횡수가 적기는 하지만 간단한 과학상식을 전해주는 과학시간은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해 준다.

'딩동댕 유치원'은 2개의 동요를 정해서 일주일 동안 반복하여 들려주고 있다. 유행가나 만화 주제가를 훨씬 많이 접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노랫말과 배우기 쉬운 동요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또 연속 인형극 '아름다운 눈'은 '뽀뽀'의 '개똥아 개똥아'처럼 우스꽝스럽지 않고 'TV 유치원'의 '피피오'처럼 황당하지 않은 창작 동화로 재미를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아 대상과 저학년 대상의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아이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프로그램 수도 극히 적어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놀이와 교육을 구태여 구분하지 않고 놀이속에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놀이에 대한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 여겨진다. 보여주는대로, 가르쳐주는대로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아쉽다.

교육부의 교육개혁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성인 대상 프로그램보다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기본 명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TV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성인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투자 또한 너무 미미하다. 우리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원한다면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해 주어야 하는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히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임이 명백하다.

정리: 손문선(본회 매스컴모니터)



부활된 일일 연속극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유행하는 복고적인 경향이 TV 드라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일일 연속극이 방송사마다 부활되었고 그 내용도 요즈음 찾아보기 힘든 대가족제도 속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주제로 삼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그동안 꾸준히 시청률에서 상위권을 지킴으로써 일일극의 부활에 촉매제가 된 KBS1 '바람은 불어도'와 2월 5일부터 시작한 KBS2 '며느리 삼국지', SBS '자전거를 타는 여자'를 모니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모니터 기간은 2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3주간이다.

일일 연속극은 다른 드라마들과는 달리 대개 우리의 일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다룬다. 그래서 온가족이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할 수 있어 꾸준한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일일 연속극이 자취를 감추었던 것은 제작상의 한계,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내용 등이 문제가 되어 자체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 방송사에서 일일극이 시청률에서 계속 우위를 지키자 방송사마다 앞다투어 일일극 경쟁 속에 뛰어들었다. 이번 모니터 결과 한 편의 일일극이 시청자의 사랑을 받는다고 이에 뒤질세라 다른 방송사에서도 앞뒤 가리지 않고 일일극을 양산해 넘으로써 과거의 시행착오를 재현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KBS1의 일일 연속극 '바람은 불어도'의 높은 시청률로 인해 SBS와 KBS2에서 일일극을 시작하고 연이어 MBC에서도 '자반고등어'라는 일일극이 3월 4일부터 방영될 예정이다. 타 방송사의 시청률을 지나치게 의식해 거의 비슷한 시간대(오후 8시 30분~9

시 50분)에 비슷한 형식과 내용의 드라마를 내보내는 것은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를 배려하지 않고 시청권을 제한하는 대응편성의 단면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연속극은 속성상 내용 전개에 있어서 한 회분이 끝날 때마다 시청자를 붙잡아두기 위해 다음을 보지 않고는 못배기도록 궁금증을 유발시킨다. 그것이 일일극일 경우는 날마다 같은 시간에 시청자를 TV앞으로 유혹한다.

드라마의 주 시청자는 주로 여성 특히 주부이다. 일일극이 많아져 채널을 돌리면서 드라마만 보는 여성들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드라마는 허구의 세계이다. 드라마에만 몰입해 세상과 괴리되는 현상을 가져다줄 수도 있으며 아무 것도 못하고 TV앞에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방영되는 내용도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사고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었

기에 더욱 염려스럽다. 시청을 하고 안하고는 시청자 개인의 자유의사로 하겠지만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는 공급자의 양식에 달려 있다. 한동안 줄어드는 듯이 보였던 드라마 편수가 다시 증가됨을 보면서 드라마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에도 불구하고 질적 증가보다는 양적 증가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방송사측의 제작 방향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가부장적 사고의 강화

시청자는 드라마가 보여주는 대로 회노에락을 나누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현실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드라마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바람은 불어도'는 할머니를 비롯 아버지, 어머니, 아들부부, 딸, 손녀 그리고 삼촌 부부 4대가 한 집에서 산다. '며느리 삼국지'도 3대가 한 지붕 아래서 부대끼며 살고 있다. 이런 가족상은 대가족제에 대한 향수일 수도 있지만 여러 에피소드를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그러다보니 현대의 핵가족화된 가족상과 거리가 멀고 현실감이 결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대가족을 다루는 드라마일 경우 벗어나지 못하는 고질적인 가부장적 사고가 문제로 대두된다.

가정이란 가족 개개인이 가정의 주인이며 동시에 일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불어

도'는 가장과 그에 속한 가족이라는 상하 구조로만 파악되는 가부장제도를 아름다운 미덕으로 보여주고 있다. '며느리 삼국지'는 도를 더해 흔들리는 남자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가부장적 위계 질서를 세우는데 드라마의 초점이 있는 듯하다. '자전거를 타는 여자'는 지방도시를 배경으로 세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다른 두 드라마와 달리 한 가족이 아닌 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므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꼬집어낼 수 있는 반면에 등장인물의 수가 많아 전체적으로 산만한 느낌이고 이야기의 맥이 자주 끊기고 있다.

이렇듯 가족 드라마는 급변하는 사회와는 무관하게 전통적인 통념을 답습, 유포시키는데 머물러 있다. 드라마의 사회적 기능과 영향을 염두에 둔다면 현대 가족제도에 대한 고찰과 함께 시청자들에게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해주는 선구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이런 시도가 드라마 자체의 발전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바람은 불어도'는 종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높다는 이유로 연장 방영되고 있다. 그로 인해 야기된 작위적인 상황 전개는 작품성에 흠을 남기고 있다. 이런 경우는 인기있는 드라마들이 항상 처하는 딜레마인데 시청률보다는 작품성에 비중을 두는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여러가지 이유로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일일 연속극이 방송사마다 부활되었다.
그런데 한 편의 일일극이 시청자의 사랑을
받는다고 이에 뒤질세라 다른 방송사
에서도 앞뒤 가리지 않고 일일극을
양산해 넘으로써 과거의 시행
착오를 재현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고정된 성역할로 왜곡되는 인간상

남자의 모습

세 드라마는 모두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 가정의 권위를 축으로 가정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으로서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이 보여진다.

'바람은 불어도'에서 아버지(김무생 분)의 가솔은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모범적 가장으로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가정의 권위를 내세우며 항상 책임감있는 행동으로 모범이 되어 왔던 인물이 강제 퇴직을 당했다고 해서 가솔후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가족들의 애를 태우게 하는 모습은 내용을 늘이기 위한 지나치게 작위적인 설정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인물 성격의 일관성을 잃어버린 결과까지 가져왔다.

'자전거를 타는 여자'의 시아버지 봉정만(신구 분)도 가치관에 일관성이 없다. 절약 정신이 투철한 시아버지가 배사에 '내 돈으로 샀다'고 하며 이 물건, 저 물건을 사들이는 며느리에 대해 그냥 넘어간다. '며느리 삼국지'의 아버지(심양홍 분)는 삼촌(김용건 분)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고 해서 일부러 할머니(김용림 분) 들으시라고 서로 눈치를 주며 큰 소리로 아내와 며느리에게 야단을 친다. 이런 모습은 아버지로서 올바른 태도도 아니며 오히려 권위를 실추시킨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미지가 혼돈스러움에도 불

구하고 가정의 질서는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며느리 삼국지'의 경우 현재 남성들은 무능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 해내지 못하고 있어서 여자들(할머니, 어머니, 큰며느리)에 의해 가정이 유지되고 있다보니 불안정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내용이 전개되면서 남자들의 위치가 공고해지며 호트러진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 같다. 결국 여자들이 설치하는 집안치고 제대로 된 집안없고, 남자들의 권위가 회복되어야만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유지된다는 전근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드라마가 될 것이다.

여자의 모습

'바람은 불어도'를 보면 맏며느리(박성미 분)이 온갖 희생 속에서 집안이 조용하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며느리 삼국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맏며느리(임

예진 분)의 인내가 미덕으로만 그려진다. 예부터 우리 사회는 가정이 가족들간의 균형있는 인간관계에 기초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보다는 누군가의 희생, 특히 맏며느리가 떠안아야 하는 고통을 전제로 유지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형태로는 핵가족이라고 하나 정신적으로 대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맏며느리들의 위치는 그리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다 드라마는 오히려 맏며느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보여주고 요구한다.

예를 들면 '며느리 삼국지'에서 어머니가 시나리오를 산 것을 알고 큰 아들이 돈을 받아와 도로 건네주자 며느리가 죄인처럼 뺨뺨매고(2월 16일) 대학생인 막내 시동생의 방을 청소해 주지 못해 미안해 한다. 허풍스러운 시동생(홍학표 분)이 여기저기 끌어다 쓴 돈을 식구 몰래 찾아주고 다니면서도 남편이 경제력이 없다



는 이유때문에 항상 기가 죽어 있다.

'바람은 불어도'나 '며느리 삼국지'에서 보여주는 맏며느리의 희생을 전제로 가정이 꾸러지고 이를 당연시하는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족관계의 모델과는 거리가 멀고 그릇된 가족관계를 형성케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를 타는 여자'에서는 아침마다 한복을 차려입고 절을 올리는 등 마치 조선시대를 연상케 하는 넉센스가 전통을 지키는 행동으로 미화되고 있다. 그런가면 시집와서 제대로 집안일도 못하고 시댁 식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던 며느리가 하루 아침에 아무런 갈등도 없이 슈퍼우먼처럼 이상적인 며느리의 역할을 해내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그 밖의 문제들

'며느리 삼국지'에서 아버지가 고스톱치다 붙들려간 상태(둘째

아들)를 경찰서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같이 붙들려 갔다 나오는 두 사람에게 국민교육현장을 외우라고 강요하는 행동은 지나친 억지이다. 간간히 보이는 이런 억지 때문에 이 드라마가 다른 두 드라마에 비해 인물들의 성격이 회화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극적이지 못하다. 기대를 걸고 있던 상구의 상대로 나타난 미치코(이지은 분)를 '쪽바리 새끼'라고 표현한 것도 지나친 폭언이다. 요즈음 독도 문제로 반일감정이 고조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런 식의 모욕은 부당하다.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서 일본인 며느리라는 설정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리라 본다. 오히려 미치코가 노래방에서 일본 노래를 부르고 상구와 미치코가 일어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을 자제했어야 한다.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 보다는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침투하는 왜색 문화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를 타는 여자'를 제외

한 두 드라마의 주 무대는 집안 이어서 스튜디오 안에서의 제작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보기에 답답하고 30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쉽게 때우려는 무성의함을 느끼게 한다.

맺는 말

시청자들은 요즈음 드라마의 홍수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 드라마, 주중 드라마, 미니 시리즈, 주말 드라마, 단막극, 특집 드라마... 여기에 일일 드라마까지 가세하여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양적인 증가가 질적 향상과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일 연속극의 부활은 누구나 알다시피 시청률 경쟁이 빚어낸 결과임은 자명하다. 경쟁사회에서 경쟁은 어디서건 불가피하고 피해갈 수 없겠지만 어떤 것으로 경쟁하느냐는 선택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같은 것으로 경쟁하기 보다는 남이 하지 않는, 미처 생각지 못한 것으로 나설 때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일일 드라마에 일일 드라마로 대응하고 나선 것은 진부한 발상이며 발전이 아닌 퇴보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갖게 한다.

정리: 김명숙(본회 매스컴모니터)

한국사회와 매매춘 여성문제

김영란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연구원)

매춘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중심의 왜곡된 성문화 교정, 여성의 취업구조 개선, 향락산업의 억제와 더불어 여성들이 연대를 통해 국민의 의식개혁과 한국의 성문화를 바꾸어나갈 주체세력이 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알랭 코르빈(Alain Corbin)은 매춘은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말한다. 매춘은 그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사회악으로서 형태는 다르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세계 어느나라의 법조문헌이든 매춘의 존재가 사회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규정한 곳은 없고 봉건시대부터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 정치가 등은 매춘행위를 근절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성공한 적이 거의 없을 만큼 그 뿌리가 깊다. 우리사회에서도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개정되어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 법은 기존의 방지법이 윤락행위자 중심으로 처벌하여 남자는 '안전지대'에 위치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윤락행위의 상대방도 처벌하는 것으로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윤락행위를 제공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와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윤락행위를 강요한 포주에 대해서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시행초기부터 처벌강화는 커녕 말 뿐인 법규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의 매매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디에 있는가?

매매춘 행위의 현황

흔히 윤락 또는 매춘 행위는 성을 판매하는 행위에만 중점을 둔 것으로 법적인 정의에서도 단지 화대를 받기 위해 몸을 파는 여자만을 지칭한다. 최근에는 성관계의 형태를 띤 매매춘은 단지 파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는 행위이기도 하기에 남성과 여성간에 성과 돈을

매개로 한 사고 파는 행위로서 매매춘으로 불리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매춘 시장과 매매춘 행위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가 없는 실정에 있으며 정확히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 수는 놀랄 만 한다.

청량리 588, 미아리 텍사스, 영등포역 부근, 용산역 부근, 기지촌 등 특정지역이나 대다수의 공식사업장(호스텔, 안마사, 콜걸 등)을 포함한 매매춘 시장의 규모는 197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 공식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10만 5천여명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41만 5천여명에 이른다. 그리고 매춘 가능한 여성의 수는 총 65만 8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이영자 교수는 현재 성을 직접 파는 직업여성들은 전국에 120~150만명(향락업소를 40만개

로 잡고 업소당 평균 3명의 접대부가 있는 것으로 계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숫자는 15~29사이의 여성인구 5명중 1명이 성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민소득 1만달러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도 매춘여성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춘의 방식과 유형이 더욱 다양화되어 사실상 매춘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굳이 사창가 등 특정지역이 아니더라도 요정, 룸싸롱, 유흥업소, 이발관 등에서도 버젓이 매매춘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매매춘 행위의 증가원인

그렇다면 매매춘행위의 증가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첫째, 남성중심의 성문화를 들 수 있는데 남자에게만 허용되는 무한한 성욕은 잘못된 성문화를 만들고 매매춘을 조장하는 커다란 요인이다. 또한 남자들이 매춘여성을 찾는 이유는 성욕해소도 있지만 이보다는 남들이 해 본 것을 못해봐서 위축되거나 많이 해 본 것을 과시하는 남자들의 왜곡된 성문화가 작용한다. 20~40대 남성을 대상으로 혼전 성경험을 조사한 바로는 응답자중 85.5%가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미혼시절 남자의 성경험은 일회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상화된 경험으로 보여진다.

둘째, 여성의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주로 저임금 직종에 있는 여성직업구조에도 원인이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비대해진 향락산업이 여성노동력을 유인하는 효과는 유례없이 강력하다. 오늘날 매춘행위는 여성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호구지책에서부터 많은 수입을 올리는 직업이 되고 있다. 여성들에게는 저임금을 받는 생산직이나 하위직종에 종사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돈벌이를 보장하는 유흥업소의 접대부 등이 더 유인력이 있을 수 있다.

셋째, 금전만능주의, 소비지향문화, 성개방의 풍조가 여성 매춘행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근래 한국 사회 전반에서 금전이 가치의 척도가 되고 있으며 노력없이 큰 돈을 벌려는 욕구가 팽배하고 있다. 그리고 중산층의 과시적 소비 풍조가 만연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적 위화감이 커져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으로 하여금 최대의 물질적 보상을 얻는 방법으로 성의 상업주의에 기꺼이 편승하게 만들며 성을 도구화하는 직업을 도덕적 거부감이나 수치심없이 선택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왜 매춘여성만 비난하는가?

매매춘행위는 남성과 여성의 쌍방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매춘행위의 책임을 돌리고 이들을 비난하고 있다. 현재 불법인 매춘제도는 묵인하면

서 매춘여성은 불법단속 대상자로 취급하며 또 매춘여성에 기생하는 다양한 착취집단은 제쳐 놓고 매춘여성에게만 사회적 비난과 오명을 부과한다. 따라서 인권차원에서 매춘여성은 건강, 임신, 육아, 정신적 갈등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집단이다. 왜 매춘여성만을 비난하는가?

첫째, 성의 이중윤리에서 찾을 수 있다.

앵겔스가 지적했듯이 가부장제의 일부일처 결혼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종속과 성적 종속을 제도화한 것이다. 남성의 사유재산권을 토대로 부계중심의 혈연제도와 부권을 절대시하는 가족구조를 성립시켰다.

이러한 가부장제 결혼은 이중적 성윤리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성은 남자의 상속권과 가문계승의 목적을 위한 생산적 기능에 있으며 혈통을 보장하기 위해 순결과 정절이 여성에게 절대적인 의무로 강요된다. 반면 남성에게는 혼외의 성적 자유와 함께 매춘이나 축첩을 통한 이중적인 성생활이 허용된다. 매춘제도와 일부일처 가족제도가 공존해 온 인류역사가 이를 입증한다. 이러한 성윤리를 지닌 사회는 여성은 성적인 존재가 아닌 반면, 남성은 성적 본능이 강한 존재로 규정하는 신화가 존재한다. 이러한 신화에 입각하여 여성은 좋은 여자(요조숙녀)와 나

편여자(탕녀)로 이분화되는데 전자는 성에 관심이 없고 남편에게 다정한 여성이며 후자는 성에 대해 관심이 많고 성을 즐기는 여성이다.

따라서 막스 브루너는 매춘은 여성의 타고난 약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탄생의 장난에 의해 매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았다.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논리의 힘은 매우 강력해서 여성의 상업화와 타락에 대해 남성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으며 성 규범에 관한 도덕적 개혁이 필요한 경우에도 여성만이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에 대한 분류는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자신이 '그렇고 그런 여성'이라고 내재화할 정도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요조숙녀의 범주에 드는 여성들은 자기 남편이 매춘 여성과 성행위를 가졌을 때에도 탕녀의 범주에 든 여성들이 남편을 유혹하였다고 믿는다. 그리고 탕녀형 여성들의 과거가 드러나 끝내 불행해지는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서 보상적인 즐거움을 얻기도 한다.

최근에는 매춘 여성의 동기와 관련해서 이들에 대한 비난의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즉 매매춘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다고 보는 것으로 과거에는 뺨을 위해서 매춘을 했다면 현재는 쾌락을 위해서 매춘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이 향락산업에 종사하게된

동기를 보면 1970년대 이전은 주로 가난한 농촌에서 상경한 어린 여성들이 유혹에 빠져 매춘을 하거나 하위직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매춘을 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재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목돈마련을 위해 매매춘하는 여성은 이전에 비해 줄었고 오히려 일자체에 매력을 느껴 선택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동기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이들로 하여금 매춘을 하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강제가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소외, 비행소녀라는 낙인(강간의 경험, 순결상실 등) 또는 인신매매, 가족과 사회의 질시, 가출, 경제적 절박함 등은 이들을 보이지 않는 강제로 매매춘시장에 내몰은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 또 성적인 일탈을 경험한 여자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비난 그리고 중대되는 향락업소의 적극적인 구인 작업 등을 본다면 여성들 개인에게 매매춘의 책임을 돌릴 수만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매매춘여성에 대한 비난은 남성중심의 성문화에서 온 것으로 남성은 여전히 비난의 대상에서 비껴나 있다.

매춘은 필요악인가?

이러한 여성의 매매춘행위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남성들의 욕망의 처리구 혹은 배설구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출발한 매매춘의 기본적 기능에 대한 주장은 매매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신학계의 최대 권위자로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시에 있어서의 매매춘은 궁전에 있어서의 하수도과 같다. 하수도를 없애버릴 때는 궁전은 악취나는 불결한 장소로 될 것이다'라고 하였고, 킨은 '매매춘은 단지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할 해악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해악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을 불의로(남자만이 이것을 범할 권리를 갖는다.)부터 지키고 정조를 습격으로 부터 따라서 파멸로 부터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았다. 근래에 와서 킹슬리 데이비드는 매매춘의 사회적 기능으로 첫째, 매매춘은 성의 대상을 일시적으로라도 갖지 못한 사람들(예를 들어 여행중인 세일즈맨, 선원, 출장중인 사업가 등)과 구애를 추구할 만한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성적 배출구를 제공해 준다.

둘째, 보다 안정된 부부관계가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기간 동안(예를 들어 별거, 이혼, 사별 기간) 성적 만족을 제공해 준다.

셋째, 어떤 이유로 인해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애활동의 경쟁에게 뒤쳐진 사람들(예를 들어 기행적 인물, 불구자, 허약자 또는 성교불능자)에게 성적대상을 제공해 준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규정한 매매춘의 사회적 기능은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매매춘은 마치 경찰, 교회, 기업제도와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하나의 필요한 사회제도도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의 지배적인 견해로서 세계적으로 매매춘행위를 존속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으며 따라서 법제에도 반영되어 매매춘을 근절하는데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매매춘은 소멸가능성이 있는가?

인류역사상 매매춘행위가 근절된 적이 있는가. 과거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중국이 매매춘에 대응한 예를 보면 매매춘행위의 근절은 국가의 이념 또는 정부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엥겔스는 '창녀제도는 배타적 성관계를 지켜야 하는 여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가 결합한 일부일처제의 산물로 단정'하면서 자본주의 몰락에 따라 창녀도 함께 소멸할 것임을 예언하였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 소련의 경우, 1909년 사회주의 혁명후 매매춘행위의 원인이 되는 실업의 퇴치 등 매매춘에 대항하는 전쟁을 개시하였고 1951년 UN조사에서 매매춘 여성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국은 1949년 사회주의 혁명후 대대적으로 창녀 개조사업을 전개하였는데 창녀가 가장 많은 도시중의 하나인 상해에서는 혁명후 7년만에 공창에서 사창 및 각종의 변형된 형태의 매

매매춘행위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소멸되었다. 여기서는 매매춘 여성은 사람들의 동정과 아울러 혐오받고 있는 이중적인 처지를 고려하여 이들이 최대로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명확히 하되 개조방법상 강제집행의 특별수단을 강구하였는데 그 개조사업의 3가지 원칙으로 성병을 치료하고, 취업을 시키며, 결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붕괴후 시장경제로 편입한 소련과 중국에서는 매매춘 여성의 문제가 다시 등장하였다. 소련과 중국을 볼 때 매매춘 문제는 국가의 의지 또는 이념에 의해 가능한 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국가경제 파탄과 자본주의로의 회귀로 매매춘 여성 근절이라는 역사적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매매춘행위의 해결책은?

최근에 학자들은 매매춘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매매춘행위의 소멸 불가능성을 이유로 매매춘의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매매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결국 매매춘여성에게 더 불리할 수 밖에 없으니 이들의 존재를 사회적 직업으로 공식인정해 주자고 한다. 이는 매매춘 여성의 일시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서구의 경우 매매춘노조를 결성하는 문제까지 제기되었는데 매매춘 여성은 급진적으로 자유롭고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매매춘여성들은 스스로를 희생자가 아니라 섹스산

업의 노동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매매춘의 합법화가 매매춘여성에게 자유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본다. 여자의 순결, 정절이 그대로 존재하는 억압적인 현실에서 매매춘여성에게 자유로움은 없다. 합법화는 여자의 억압을 공식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매매춘 퇴치의 어려움을 잘 알면서도 많은 나라에서 매매춘 근절을 위한 법제개혁을 시도하는가 하면 정부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어 실태조사, 연구와 함께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현재 정부는 윤락행위의 상대남자까지 처벌하기로 하였으나 그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매매춘은 기존체제내에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즉 매매춘행위의 원인이 되는 남성중심의 왜곡된 성문화를 교정해야 하며, 여성의 취업구조 개선, 향락산업의 역제가 요구된다. 이와함께 여성들은 연대를 통하여 국민의 의식개혁과 한국의 성문화를 바꾸어 나갈 주체세력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들의 세력화(empowerment)와 정부의 매매춘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는 탈가부장제 사회의 도래와 함께 매매춘의 소멸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누가 엄마야?

정혜진 (난곡중학교 교사)



진미숙씨는 잡지사 기자입니다. 또한 그는 여권주의자입니다. 요즘을 사는 젊은 여성들치고 한번쯤 여권을 주장해보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만 진미숙씨는 그 정도가 좀 심하고 방법이 좀 뼈뚫어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여권을 빙자하여 남편을 달달 복기도 하고 부부싸움 도중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생크레 문을 걸어차는 등 폭력 행사를 서슴지 않을뿐만 아니라 명절에 시댁에 가서도 남편을 부엌으로 불러들여 설겅이와 잔심부름을 시키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하για 진미숙씨의 주장이 그리 틀린 것도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똑같이 바깥일을 하고도 집에 돌아오면 아이 돌보기와 청소, 설겅이가 온통 여성의 몫이 되는 현실이 어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명절에 부모님을 뵈러가면 여성은 극심한 불평등을 경험하는 것이

단연코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댁에서는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제수를 준비하러 시장에 가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공공대며 들고오는 것도 여자의 몫이요, 하루종일 쪼그리고 앉아 나물을 다듬고 고기를 굽고 전을 부쳐야 하는 것도 여자의 몫이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어린 아이까지 팔린 여성은 밤이 날때마다 아기 기저귀를 빨아야 하고 젖을 먹여야 합니다. 여자들 이 그렇게 일의 노예가 되어있는 동안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가만히 드러누워 텔레비전이나 보다가 따뜻한 부침요리를 한접시 갖다 달라고 소리치는 일이라든가, 잘 익은 식혜 한 사발을 주문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조용한 방안에 쳐박혀 책을 읽는척 하다가 늘어지게 잠을 자는 것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며느리의 어원이 아무리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한 사람의 인간이 저마다의

탁월한 소질을 계발하며 삶의 완성을 지향하며 성장하다가 다른 사람의 집으로 시집을 와서는 단지 음식을 나르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물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며느리'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당장 없애버려야 한다는 진미숙씨의 주장에는 분명 일리가 있지요.

반면에 사위는 예로부터 '백년지객'이라고 했던가요. 본가에서 늘어지게 잠을 잤던 남자들은 처가에 와서는 더 웅성한 대접을 받습니다. 백년동안의 손님 대접하기 위하여 장모는 닭을 잡고 돼지고기를 저미고 과자를 굽고 술을 준비하지요. 사위는 장모가 차려주는 음식을 그저 잘 먹기만 하면 시시때때 칭찬만을 받다가 환대속에 유유히 처가를 떠나는 것입니다.

진미숙씨는 이런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에 이미 그 모든 상황을 간파한 진미숙씨는

남편과의 공동 가사분담을 주장하고 나섰고 육아문제에 관하여도 기저귀 빨래를 전적으로 남편에게 일임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나갔습니다.

물론, 시댁을 방문하는 동안에는 진미숙씨 부부 사이에 일의 균형을 이루기가 가능하지 않았습니 다. 남편이 시부모를 설득할 의지가 전혀 없었으므로 진미숙씨는 그저 틈이 나는데로 부모님의 눈에 띄지 않게 남편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편을 택하여 일을 분담하려고 했지요. 가끔 시어머니가 눈치를 채시고는 진미숙씨를 나무라시기도 했지요.

"남편이 네 친구냐?"

진미숙씨는 고개를 숙이고는 속으로는 씨익,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시는군요. 우리들은 그렇게 나란한 사이라는 것ですよ."

그런 진미숙씨네에 근래에 참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가 평등해지려다보니 생긴 부작용중의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글썄요?

진미숙씨의 남편은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술의 경우는 술자리가 만들어지면 마지못해 한두잔 마시는 것이 고작이지요.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여 명절에는 또래들보다는 조카들의 훌륭한 벗이 되어줍니다. 그래서인지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한국에서 제일 자상한 아빠가 되어 아기를 돌봅니다.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을 그보다 잘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친절하고 화를 내는 일이 드물고 자상한 그 사람을 진미숙씨의 친구들은 무척 부러워합니다. 그에게 딱 하나의 결점이 있다면 그다지 소질이 없어 스포츠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여 벌써 이년 넘게 면허 획득 실기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미숙씨에게는 중고차가 하나 생겼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새차를 구입하면서 차없는 진미숙씨에게 현차를 무료로 주었던 것입니다. 아기를 키우다보니 한번 나들이를 하려면 쟁겨야하는 짐이 많아 여간 번거롭지가 않았는데 차가 생겨 진미숙씨는 여간 고맙지가 않았습니 다. 안타깝게도 남편에게 운전 면허가 없어 하는수 없이 진미숙씨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하는 일때문에 아기를 돌보는 일의 대부분을 남편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에는 진미숙씨가 고향까지 차를 몰았는데, 거의 열 시간 동안 남편이 아기를 보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장난감을 쥐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얼려주고 하느라 남편은 피곤하여 명절 연휴가 끝나자 몸살을 앓고 드러누워 직장에 병가를 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진미숙씨도 오랜 운전으로 몸이 좀 노곤하긴 했지만 아기 돌보는 일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떠맡겨져 자 마음은 날개달린 새처럼 가볍게

며느리의 어원이 아무리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한 사람의 인간이 저마다의 탁월한 소질을 계발하며 삶의 완성을 지향하며 성장하다가 다른 사람의 집으로 시집을 와서는 단지 음식을 나르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물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며느리'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당장 없애버려야 한다는 진미숙씨의 주장에는 분명 일리가 있지요.

성별 유권자수 및 투표율

우리나라의 유권자 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다. 그러나 투표율에 있어서는 6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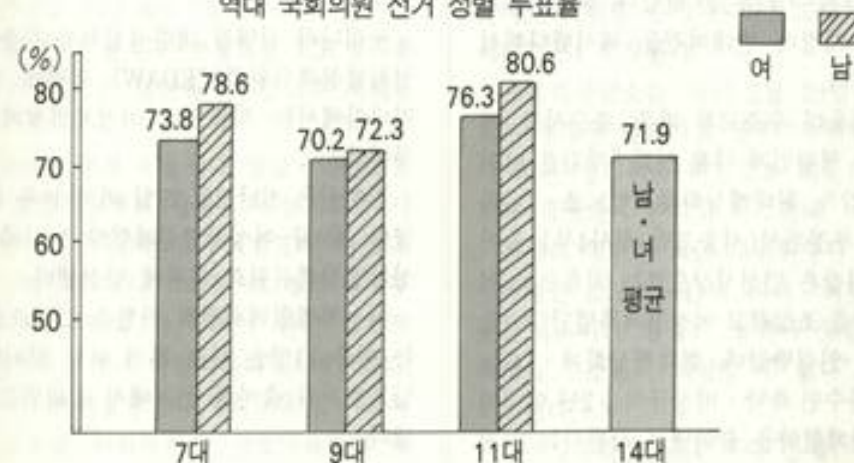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을 불식하고 국가의 주요정책 결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번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들은 선거 및 입후보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94.>

역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수

대	시행연도	여 자	남 자
6대	1963	6,839,790명	6,504,359명
7대	1967	7,525,742명	7,191,612명
8대	1971	7,928,851명	7,681,407명
9대	1973	7,925,052명	7,765,078명
10대	1978	9,891,492명	9,597,998명
11대	1981	10,586,527명	10,332,593명
12대	1985	12,139,759명	11,848,071명
13대	1988	13,271,724명	12,926,481명
14대	1992	14,707,355명	14,296,473명

역대 국회의원 선거 성별 투표율



날아 올랐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언제라도 아기를 맡겨놓고 마음 편히 일에 열중할 수 있을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남편만 믿고 친구도 좀 만나고 운동도 좀 하고...’

진미숙씨는 단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진미숙씨에게 벌을 내린걸까요?

진미숙씨에게는 이제 둘이 갖지 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용주라고 합니다.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나면 진미숙씨는 출근길에 용주를 집 근처의 탁아소에 맡기고는 저녁 퇴근 길에 데리고 돌아오지요. 용주는 불안하게 걸음을 떼고 2음절로 된 단어 몇개를 발음할뿐, 말이라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웅알이가 전부입니다. 근래에는 아빠, 엄마, 맘마, 까까, 까꿍, 웅아 정도의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아이는 뛰니뛰니해도 엄마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겠지요.

그 날도 진미숙씨는 일을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 다. 전날까지 진미숙씨는 용주와 놀 시간이 없었거든요. 귀경길에는 운전대에 앉아서 꼼짝도 못하여 용주와 눈을 맞출 시간이 없었고 다음 날에는 밀린 원고를 완성하느라 밤을 지새워야 했거든요. 그 사이 아기는 아빠와는 참쌀떡처럼 끈끈한 관계가 된 듯했고 엄마와는 모래알처럼 푸석한 관계가 된 느낌이었어요.

자 이제 일도 끝났으니 엄마와

함께 신나게 놀아보자. 진미숙씨는 내심 야무진 다짐을 하며 탁아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용주야.”

진미숙씨는 온화한 미소를 흘리며 아들의 이름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용주가 고개를 돌려 진미숙씨를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기는 바퀴달린 자동차처럼 빨리 기어와서는 진미숙씨의 품안에 안겼습니다.

“아빠.”

진미숙씨는 엄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는 용주의 얼굴을 황당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용주는 잠시 실수를 한 것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 용주는 더 반갑게 남편의 품안에 안겨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그날 밤 진미숙씨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멀뚱멀뚱 바라보며 소리없이 웃음을 흘렸을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다시 엄마, 아빠를 제대로 부르게 된 것은 열흘이나 지나서였다고 하는군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엄마와 아빠라는 말은 단지 사물의 이름이 아니라 역할 분담의 의미까지 부여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아기가 알고 있는 엄마와 아빠의 역할은 어쩌면 그렇게도 과거지향적이기

세계여성의날 기념대회

비디오 「젓소부인바람났네 I, II」의 극작가 최강주씨, 서울대 성희롱사건의 박용상판사 등 5명이 국내 여성권익을 가로막은 걸림돌로 선정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해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여성대회에서 여성권익 걸림돌 5인, 디딤돌 5인을 처음으로 선정, 발표했다.

여연은 앞으로 해마다 걸림돌·디딤돌을 선정기로 했다. 걸림돌·디딤돌 발표를 비롯, 연극, 비디오,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식 등으로 화려하게 진행되는 여성대회는 3월 9일 오후 2시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 장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여연이 추진 여성권익 걸림돌로 첫손에 꼽힌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2심판결을 맡은 박용상부장판사(서울고법 제9민사부)는 “이번 성희롱은 남녀관계에서 일어난 경미한 실수”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여성계의 지탄을 한몸에 받았다. 성희롱사건의 피고인 신정효교수는 성희롱의 가해자로서 도리어 두조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는 점에서 「걸림돌」로 선정됐다.

이밖에 비디오 「젓소부인바람났네 I, II」의 극작가인 최강주씨는 여자주인공을 윤리·도덕은 안중에 없이 성적 쾌락에만 관심있는 인물로 그려 여성상을 왜곡했다는 「죄목」을 달았다. 한국경총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예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해서 걸림돌로 선정됐다.

디딤돌로는 서울대 우조교를 비롯, 조순시장, 매 맞는 아내문제를 형평있게 다룬 영화 「개같은 날의 오후」의 이민용감독, 현대해상화재보험노조·LG화재노조, 강완구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4부) 등이 선정됐다. 조순시장은 민선시장으로는 처음으로 여성발전기금 60억을 조성하고 여성정책특별담당관을 두는 등의 공을 인정받았다. 현대해상화재·LG노조는 여성이 대다수인 촉탁·비정규직을 2년 이내에 정규직화하는 단체협약을 끌어냈고 강판사는 가정

폭력 피해자인 김명희씨의 남편 살해사건 2심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했기때문에 「디딤돌」로 뽑혔다.

부끄러운 선거 사진전

선거폭력, 금권선거, 흑색선전 등 우리네 선거 50년사를 꿰뚫는 부끄러운 용어들.

1960년 장택상후보 방해테러사건부터 88년 광주 서구갑 유세장에서 운동원들간의 충돌모습, 92년 민자당의 경남거창지구당에서 1만원권 지폐가 오가는 장면 등 공명하지 못한 선거현장을 담은 사진들이 한자리에 선보였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지난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운현궁 미술관에서 연 「부끄러운 선거: 그때 그 모습」 전시회에서는 유형별로 불법선거운동 50년을 뼈아프게 정리하고 있다. 3월 28~30일에는 대전시민회관, 4월 1~3일 부산시민회관, 4월 8~10일 광주조흥문화관으로 자리를 옮겨 전시회를 갖는다.

김영정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피선

우리나라 김영정 대한적십자사 부총재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위원에 피선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차별철폐위에 진출한 것이다.

김위원은 지난 2월 2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9차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에 당선됐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은 23명으로 이번 선거는 이중 11명을 새로 뽑기 위한 것이었다. 17개국 입후보자가 출마한 선거에서 김위원은 3위로 당선됐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여성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이루기위해 82년 생긴 유엔 총회 산하의 기능위원회. 김위원은 앞으로 4년 임기동안 활동하게 된다. 81년 발효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세계 151개국이 가입국으로 있으며 우리나라는 84년 12월 협약가입국이 됐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매년 1~2회 뉴욕, 비엔나를 오가며 회의를 갖는다. 위원회가 하는 일은 협약당사국이 4년마다 내는 정기보고서를 심의하고 이 보고서에 대한 권고 및 위원회 활동경과를 매년 유엔총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4년 제3차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영정위원은 이대 사학과 교수출신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초대원장, 12대 국회의원, 정무제2장관 등을 거쳐 현재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로 일하고 있다.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공청회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방과후 아동지도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형성돼 있으나 합리적인 실천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무제2장관실은 지난 3월 7일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방과후 아동지도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다.

이 공청회에서는 현재 서울시내 상암·안산초등학교 등 2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아동지도를 시범 실시하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여성개발원 김재인연구원은 “아동지도제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가 맡되 각 부처가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방과후 아동지도 관련법규정이 사회교육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 청소년육성법 등

여러가지 법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

김재인연구원은 아동 20명을 2명의 아동지도사가 지도할 경우를 예로 들면 월평균 학부모 부담은 43,000원, 학교부담이 월 1백7만2천원, 학교운영위원회가 월 1백11만원 정도 든다고 추산했다.

한편 학부모 단체인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측은 “방과후 아동지도제는 운영형태를 다양하게 채택, 학부모의 선택의 여지를 넓혀줘야 한다”며 초등학교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시설 등을 두루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부에 의한 성폭력, 비친고죄 적용돼야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성폭행했을 경우도 친아버지와 같이 피해자 신고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의부에 의한 성폭력에 비친고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친족간 강간·강제추행」(제7조)과 관련, “의붓아버지는 우리네 사회풍토상 「사실상 친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부에 의한 성폭력범죄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성폭력특별법이 의부·양부에 의한 성폭력을 비친고죄 대상으로 명시해야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대법원형사 2부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조모씨(44)에 대해 “의붓아버지는 존속 또는 4촌 이내 혈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고소없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서 비롯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 문제는 법조항의 해석

차이"라고 말했다. 성폭력특별법 제7조에 아버지·오빠 등 연장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본인의 신고가 없이도 경찰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 7조 4항에는 친족범위에 「사실상의 친족관계」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 「사실상의 친족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라는 얘기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의 친족에 양부·계부를 포함시키지 않은 셈이다.

성폭력상담소는 이와 관련, "우리 사회에서 통상 양자를 내 자식으로 삼아 키우며 의부·양부를 「아버지」로 삼는 마당에서 의부·양부를 남으로 간주하는 이같은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5대 총선 여성공천 기대에 못미쳐

15대 총선 지역구 공천에서 각 당이 낸 여성후보가 여성계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여야를 통틀어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후보가 7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역구공천 지원자는 여당인 신한국당에서 3명,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7명, 자민련 2명 등 12명이었다. 이중 공천확정자는 7명이다. 신한국당 1명, 국민회의 4명, 자민련 2명 등이 지역구에서 한판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통합민주당에서는 지역구 여성 후보가 한명도 없는 상태다.

이렇듯 지역구 여성후보가 빈약해지자 여성계에서는 지역구의 여성공천확대를 지원하던 데서 방향을 틀어 「전국구의 여성할당 50%」를 외치고 있다. 현재 2% 밖에 되지않는 여성의원 비율을 세계 평균치인 11%로 끌어올리자는 생각에서다.

통합민주당이 지역구에 여성후보를 한명도 내지 못한 것은 인물난을 반영하는 결과이며 자민련에서 공천받은 여성후보가 애초 계획한 4~5명선을 밑도는 2명에 그친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여당인 신한국당에서 지역구 여성후보를 1명밖에 내지 못한

것은 그만큼 정당이 여성공천에 인색함을 드러내는 사실이다. 여성공천비율은 상대적으로 야당이 높았다.

신한국당 지역구 여성후보는 도봉갑 양경자위원장 1명이다. 양위원장은 12, 13대 의원을 지낸 2선 의원답게 여유있는 준비활동을 펴고 있다. 양위원장은 "개정된 선거법이 돈안쓰는 선거를 표방하고 있어 여성후보들에게 유리하다"며 30대 젊은 주부들 상당수가 여성유권자가 여성후보를 밀어야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김희선위원장(동대문갑), 추미애위원장(서울 광진을), 이미애위원장(경남 양산) 등 3명이 공천을 받았다. 정막선위원장(경남 산청·함양), 김정현씨(광주 북구을), 한영에서(전남 보성·화순) 등 3명은 경합을 벌이고 있어 공천확정은 미지수다.

자민련에서는 김을동 전서울시의원(종로), 고순례변호사(마포갑) 등 2명이 지역구에 출마한다.

전국구 여성공천비율은 아직 미지수이나 여당에 비해 야당이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국민회의가 25%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데 비해 신한국당은 중앙상무위원회 여성분과위에서 당수뇌부에 40% 할당을 건의하고 있을 뿐 이렇다할 확답은 나오지않은 상태다.

할당제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는 지난 2월 15일 15대 총선 여성공천 할당촉구 여성단체 대표자모임을 갖고 지역구의 여성공천이 매우 저조다하며 전국구만이라도 50%를 여성에 공천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할당제여성연대는 이날 「여성유권자들이 여성후보를 찍읍시다」 캠페인을 펴는 한편 여성공천을 성의있게 한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구의 50% 할당요구는 현재 각당 지역구 공천확정 여성후보 7명이 모두 당선된다고 가정할때 전국구의 50%인 23석이 모두 여성에게 돌아가야 여성의원비율이 11%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이구경 (경향신문 기자)

제38차 정기총회



제38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7일 본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의원 124명중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총회는 1995년 감사보고 및 사업보고, 결산보고에 이어 1996년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매스컴모니터 교육

본회는 지난 3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매스컴모니터 교육을 본회 2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30여명의 신규 모니터들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첫째날 여협소개 비디오 상영에 이어 매스컴모니터링 필요성 및 모니터 역할(최창섭, 서강대 언론대학원장), 비디오 「미디어 숲속의 사람들」 상영, 대중매체의 본질(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여성

문제의 인식(오숙희, 이대 여성학과 강사)에 대한 강의를 가졌다. 둘째날은 매스컴모니터링 방법론(김기태, 서강대 강사), 비디오 「대중매체속의 여성」 상영, TV드라마 특성과 제작구조(최상식, KBS TV 드라마제작국 주간), 여성과 매스미디어(박혜란, 이대 강사, 여성신문 편집위원)에 대한 강의와 전상금 본회 매스컴모니터 회장의 매스컴모니터회 활동소개

가 있었다.

이번 교육의 수료생중 희망자들은 본회 매스컴모니터로 활동하게 된다.

15대총선 여성공천할당촉구 여성단체 대표자모임

본회의 33개 회원단체를 포함한 68개 여성단체들의 연대체인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이하 연대)는 지난 2월 15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오전 11시부터 8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5대총선 여성공천할당촉구 여성단체대표자모임」을 가졌다.

이미경 연대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



▶ 협의회 소식

대와의 공동협력 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윤수자이사,
고대 노동대학원
고위지도자과정 수료

본회 이사인 고향을생각하는주
부들의모임 윤수자 회장은 지난 2
월 15일 고려대 제2기 노동대학원
고위지도자과정을 수료했다. 고려
대 노동대학원 고위지도자과정은
1년과정이었으며 이번 수료식의
수료생 77명 가운데 여성은 3명
이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규탄 성명서

본회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 이케다 유키히코 일본 외상의 망언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망언은 일본정부가 경제수역의 전면 설정과 부분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을 조만간 통과시키기로 되어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치졸한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내각의 한일관계에 대한 그릇된 역사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독도는 역사적 사료에 의해 우리나라의 땅임이 증명되고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데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차원을 넘어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본 하시모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지도층 인사들이 과거의 침략적 역사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 망언을 일삼는 한 양국의 관계는 정상화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본회는 일본당국이 이번 망언이 한국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더이상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습관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자국의 이익을 쟁기려는 알뜰한 술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그릇된 역사인식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역사바로세우기라는 확고한 신념하에 이러한 망언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일본측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본회는 한국의 2천2백만 여성을 대표해 일본의 무책임한 망언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일본당국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1996. 2. 13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연속

우 · 리 · 들 · 의 · 광 · 장

대한영양사회

제27회 정기총회 및 '96년도 지도자대회 개최



대한영양사회는 지난 2월 10일 전국 각 지부와 본회의 총 대의원 210명 중 12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여성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제27회 정기총회 및 지도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 개최식에서는 영양사회 사업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한 인사와 영양사회 본회 및 지부, 분과위원회 운영에 공이 컸던 위원들에게 감사패, 공로패, 학술상, 우수지부상을 시상하였으며, 서은경 회장의 개회사와 이영남 자문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진 대의원 총회에서는 김병구 감사의 1995년도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문현경 부회장이 1995년도 사업 시행 결과를, 이원표 부회장이 1995년도 결산을 보고하고 1995년도 사업 시행 결과와 결산을 심의·승인하였다. 1996년도 사업 계획(안) 심의의 건에서는 김경주 이사가 영양사 진출분야 확대, 영양사 전문화, 지부 조직 활성화, 영양사직 사회 인식 제고라는 사업 추진 목표아래 조직 강화, 전산 관리, 국가영양정책 및 영양사 정책, 교육, 출판, 조사·

개발·연구, 홍보, 섭외, 국제교류, 정부협력 사업, 회관건립 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안 심의에 들어가 1996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사업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96년도 예산을 경상 회계와 회관 건립 예산으로 나누어 이원표 부회장, 이영남 자문이 보고하고, 의안 심의에 들어가 '96년도 예산을 심의·확정하였다.

한편, 조직 활성화를 위한 영양사회 본회 및 지부 임직원의 지도자로서의 능력 개발과 영양사회 본회와 지부 운영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갖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지도자대회에서는 각 지부별 사업 계획 발표와 문현경 부회장·조정순 감사의 「한국 영양사직의 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연구 보고 및 토론이 있었으며, 1996년도 국민건강증진 시책 보고 및 토론을 마지막으로 전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다이어트 캠프 실시

대한영양사회는 동아텔리비전, 「FEEL」지와 공동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설악 프라자 패밀리 타운에서 다이어트 캠프를 실시하였다. 10대부터 40대까지 총 65명의 지원자가 참가한 이번 다이어트 캠프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4개의 프로그램(판정의 오두막, Li-



우 · 리 · 들 · 의 · 광 · 장

ght Cooking Contest, 이야기 오두막, 음식이 있는 오두막)을 영양사회에서 기획,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러 명의 영양사들이 체중 조절을 위한 기본적인 영양 상식 및 바람직한 식사 습관 뿐만 아니라 식품 섭취량 조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었으며, 「Light Cooking Contest」에서는 참가자들이 달 1/6마리와 6가지 이상의 채소를 가지고 '저열량 고영양식'을 직접 만들어 보고 이를 영양사가 평가해 주는 시간을 가져 많은 호응을 받았다.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96 촛불의식에서 제3회 BPW Gold Award 시상

매년 2월 세계각국의 전문직여성클럽들의 행사인 촛불의식이 지난 2월 23일 오후 6시 조선호텔 오 키드룸에서 강봉균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김정자 정무제2차관,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사 사장, 유재현 경실련 사무총장, 이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 내빈과 회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는 홍연숙 연맹국제관계위원장의 개회로 시작, 조창현 한양대 교수의 '15대 총선과 유권자의 선택' 강연과 BPW Gold Award 시상식, 촛불의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제3회 BPW Gold Award는 강봉균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과 박성용 금호그룹 회장(대리수상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공동수상했다. 강봉균 실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 「여성사회참여확대방안 10대과제」 선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박성용 회장은 「성희롱방지 지침서」를 제작, 전 계열사 임직원에게



배포·교육하는 등 여성의 근무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남녀평등실현과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남자 공로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BPW Gold Award는 1994년 제정, 올해로 제3회를 거치면서 수상자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로부터 이제 '영광스러운 상'으로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은퇴여성사회참여연구위원회' 활동 시작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은 정년퇴직한 전문직 여성의 능력과 경험이 계속 발휘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생활의욕을 북돋우고,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 등과 연결시킴으로써 전문인력의 사회적 낭비를 방지한다는 취지에 지난 2월 26일 프레스센터 프레스룸에서 '은퇴여성사회참여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위원회'를 정식 발족하고 4월 말경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정년퇴직한 전문직여성을 대상으로 조직화, 사회참여 방안모색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연맹의 진로지도위원, 직종 및 직업개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여성학, 사회학,

우 · 리 · 들 · 의 · 광 · 장

경제학 등 학계에 있는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정년퇴직한 여성들의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직업개발 및 새로운 직업정보수집 및 연결, 은퇴여성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 은퇴여성 조직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자순(한양대 사회학 교수), 김동배(연세대 사회학 교수), 김현자(한국여성개발원 이사장), 성민선(가톨릭대 사회복지학 교수), 손덕수(효성여대 여성학 교수), 윤용자(걸스카우트연맹 서울시연맹장), 조우현(숭실대 경제학 교수), 이정자(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회장), 장도송(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진로지도위원장)

한국퇴역여군회

'96 제4차 정기총회



한국퇴역여군회는 지난 2월 28일 오전 11시 육군회관 무궁화홀에서 대의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96년도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의안보고로는 '95년도 사업보고와 예산사용실적,

감사결과 보고가 있었고 이어 '9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임원보선 등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가톨릭여성연합회

세계 가톨릭여성연합회 총회 참석



가톨릭여성연합회 박애주 회장, 김신실 부회장, 이근자 총무, 이정자 전주가톨릭여성회 회장은 지난 2월 3일~11일까지 호주 캔버라에서 있는 세계 가톨릭여성연합회 총회에 참석했다.

세계 45개국 678명의 각국 여성대표들이 참가한 이번 총회의 주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여성, 화해, 희망이었으며 김신실 부회장은 세계 가톨릭여성연합회(WUCWO)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박애주 회장은 지난 87년부터 이번 총회전까지 이사로 일해왔다.

대한간호협회

제63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월 22~23일 양일간 세라톤 위커히호텔에서 제63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 간호협회 제25대 회장으로 최영희 현회장(이화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이 선출되었으며 제1부회장으로는 정연강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가 제2부회장은 최국미 강동성심병원 간호부장이 확정되었고 이사 및 감사 등 새 임원진이 선출되었다.

이와함께 간호사 국가시험원의 설립, KNA 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간호사업 수준향상 및 전문직 역할 확대 등에 중점을 둔 96년도 사업계획안과 경상, 신문, 출판, KNA 연수원 운영, ICN 기념사업회계 등을 포함한 총 30억4백8만6천원 규모의 예산안의 확정 및 정관개정을 통해 가정간호사회를 산하단체에 포함시켰다.

표지의 말

수 향



류민자 작

류민자씨는 1942년 서울에서 태어나 홍익대 회화과와 1981년 이화여대 교육대학원(미술교육 전공)을 졸업했다. 1970년 하인두·류민자 부부전 이래로 12회의 개인전과 80년 서울신문창간 35주년기념 동·서양화 정예작가 초대전, 90년 예술의 전당미술관 개관 기념전의 다수의 단체전 및 초대전을 열었으며 75년~77년 일본 동경에서 아세아 현대미술전 및 79년~84년 프랑스 파리의 Art Sacre' Art & Matiere Expression Spirituelle 초대, 79년에서 85년 프랑스 파리에서 Comparaisons전 등의 국제전을 가졌다.

제 3회 한국미술대상전 특별상 및 Association Belgo-Hispanica Belgique 왕족상의 다수를 수상했다.

본회를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특별 찬조금 •

장병주 (국제여성승공연합 고문)	1,000,000원
손동완	200,000원
조동원	100,000원
염종옥 (고입피해여학생 학부모)	100,000원

• 후원금 •

이종실	30,000원
류명임	20,000원
이경아	10,000원
이명화	10,000원
이 인	10,000원
권연수	10,000원
김서옥	10,000원
김정자	10,000원

알 린

96년도 전국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

일시: 1996년 4월 2일~3일

장소: 강원도 용평 리조트

주제: 정보화시대와 여성

제33회 전국여성대회

일시: 1996년 10월 10일(목)

10:00~15:00

장소: 류관순 기념관

후원자를 모십니다

본회는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본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본회의 목표와 활동에 찬성하시는 분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여러분의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00원 이상 보내주시는 분께는 1년분 '여성'지를 보내드립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동참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 한강로지점

067-01-001600

또는 지로용지 이용

후원금을 보내신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794-4560, 796-456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